

GLOCAL UNIVERSITY 30

글로벌대학 30사업 & 강원도립대학모델

# 강원도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2024. 3. 27.



체육학과 최성범  
제5대 교수회장  
교수평의회 의장  
대학평의회 의장

#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설문조사의 배경



-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 이후, 실행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과정 단계
- 대학 구성원 간 합리적 소통과 진행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 강원도국립대학 실행과제의 면밀한 검토와 개선방안 모색



## 설문조사의 목적



-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의 이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 효율적인 통합 과정 및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 전략
- 대학 구성원 간 이슈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한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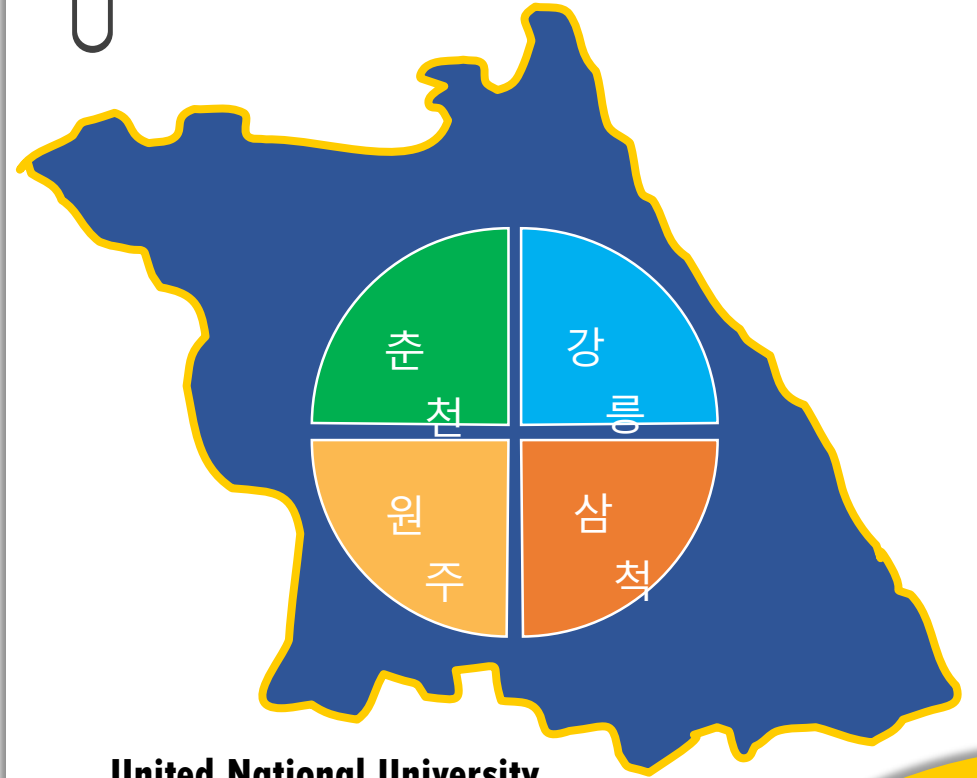
## 설문조사의 개요

- ▣ 설문 대상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직원 및 조교
- ▣ 설문 기간 : 2024년 3월 5일(화) ~ 3월11일(금), 5일간
- ▣ 설문 방법 : 익명성 보장, 구글 설문조사 플랫폼 활용
- ▣ 분석 방법 : SPSS 28.0 통계 패키지를 활용, 기술통계분석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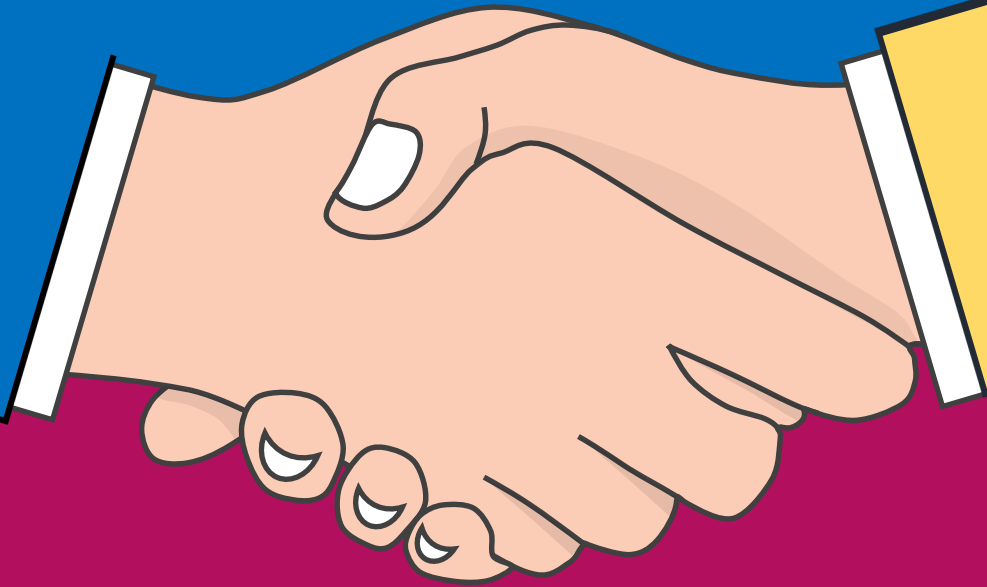
## 설문조사의 기대효과

- ▣ (개선 필요사항 점검)
  - 주요 통합 정책 현안 이해 증진과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제시
  - 대학 구성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 ▣ (상생 통합방안 모색)
  - 대학별 문제점 및 현안 별 의견 공유를 통한 공동 방안 의견수렴
- ▣ (지속적인 현안 토의)
  -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의 현안 토론이 될 수 있는 의제 발굴
- ▣ (사업의 효과성 증진)
  - 구성원의 의견 반영, 정책과제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자료



**United National University  
in Gangwon State**





**The Best of Glocal University 30**  
**to United National University in Gangwon State**

GLOCAL UNIVERSITY 30

글로벌대학 30사업 & 강원도립대학모델

# 강원도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참여자의 특징

01



글로벌대학 30 사업 - 구성원의 인식도

02



글로벌대학 30 사업 - 추진과정 및 방법

03



글로벌대학 30 사업 - 거버넌스

04



글로벌대학 30 사업 - 학사구조 재구조화

05



글로벌대학 30 사업 - 직원복지



## GLOCAL UNIVERSITY 30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설문 참여자의 특징



# 설문조사 참여현황

##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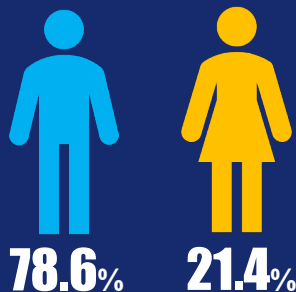
개인정보동의 90.8%

응답비율 **46.8%**



## 성별

n=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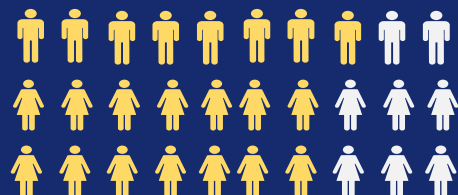


## 직원·주교

**194 /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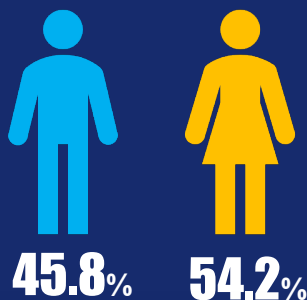
개인정보동의 88.4%

응답비율 **64.4%**



## 성별

n=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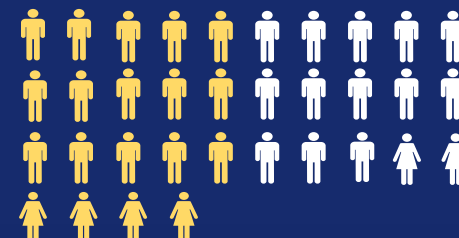


## 교직원 및 주교

**367 / 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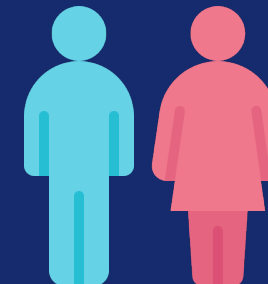
개인정보동의 89.5%

응답비율 **55.2%**



## 성별

n=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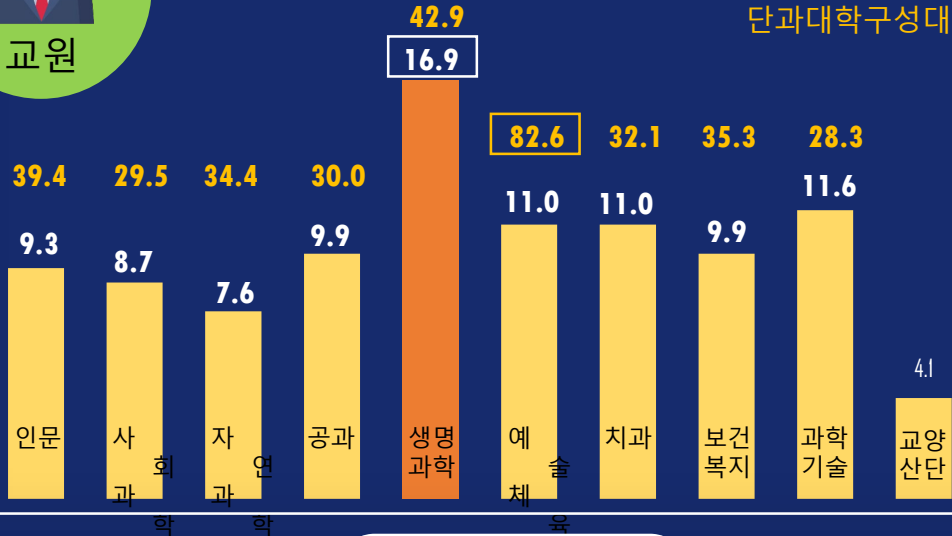
# 설문조사 참여현황

## 단과대학별

n=173  
설문참여자 대비  
단과대학구성대비



교원



## 캠퍼스별



## 조사 참여하기



직원·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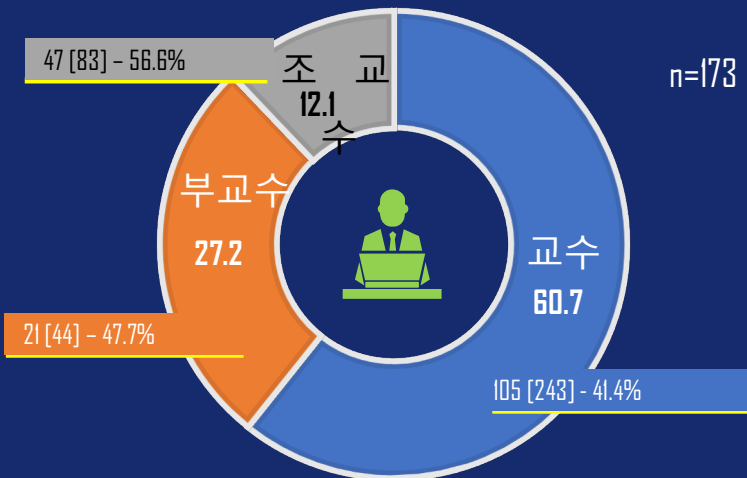
## 캠퍼스별



### 직급별

23.12.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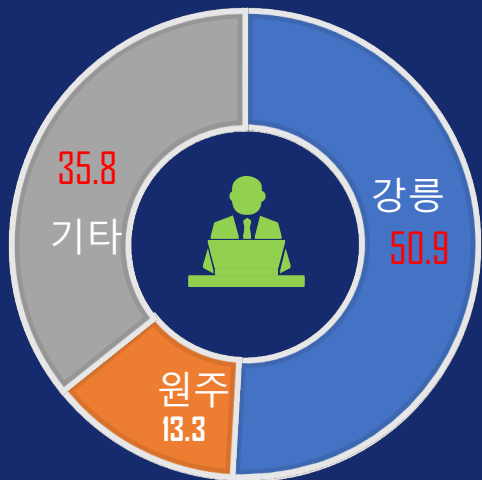
n=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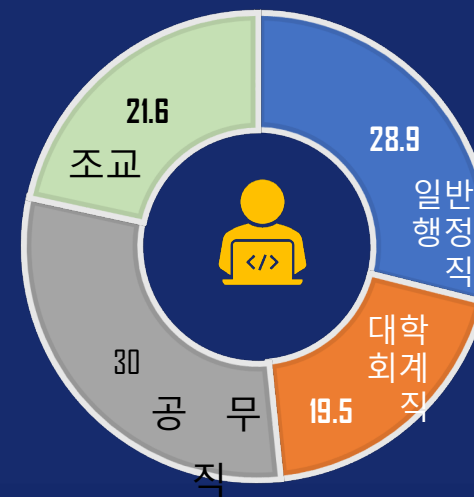
교원

### 가족거주지별

n=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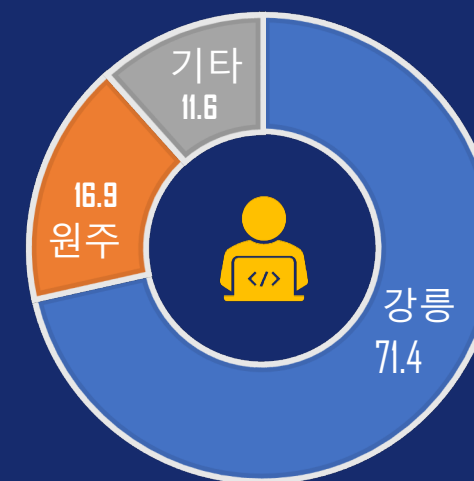


### 직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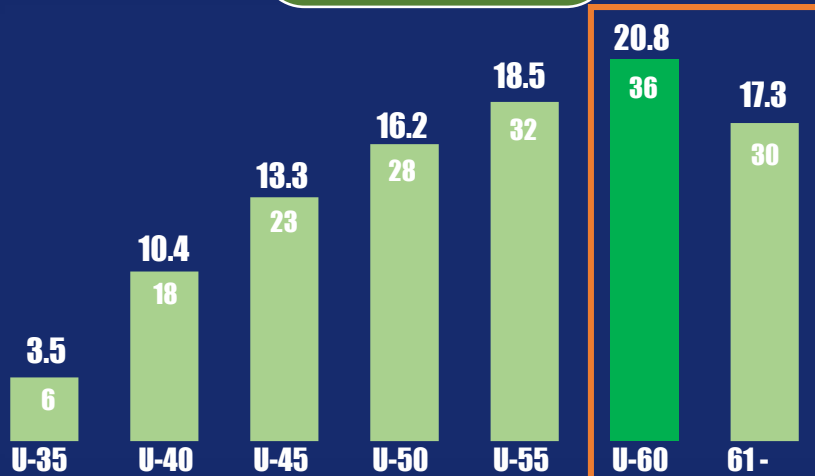


직원·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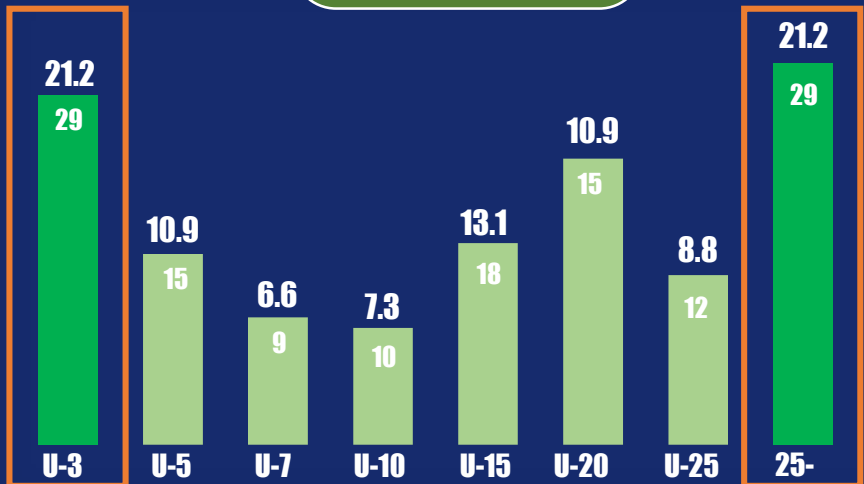
### 가족거주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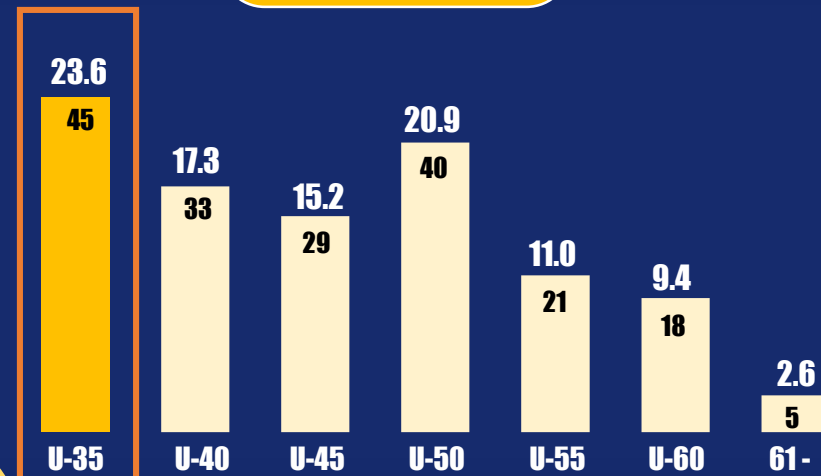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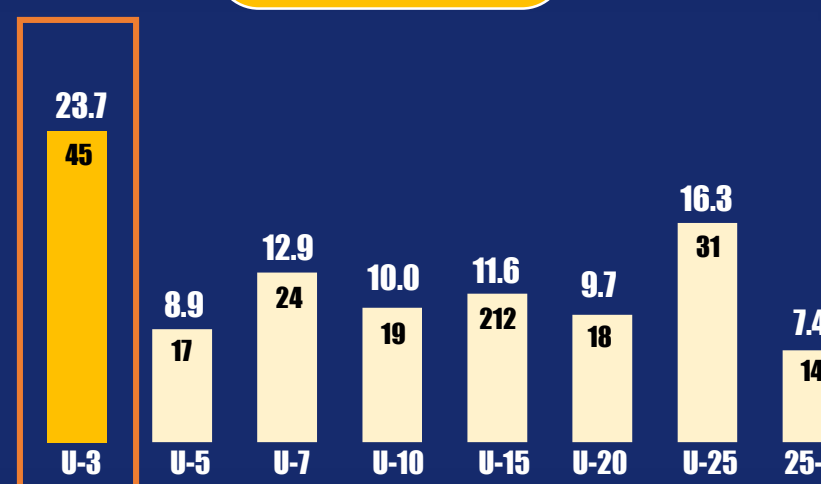
재직연수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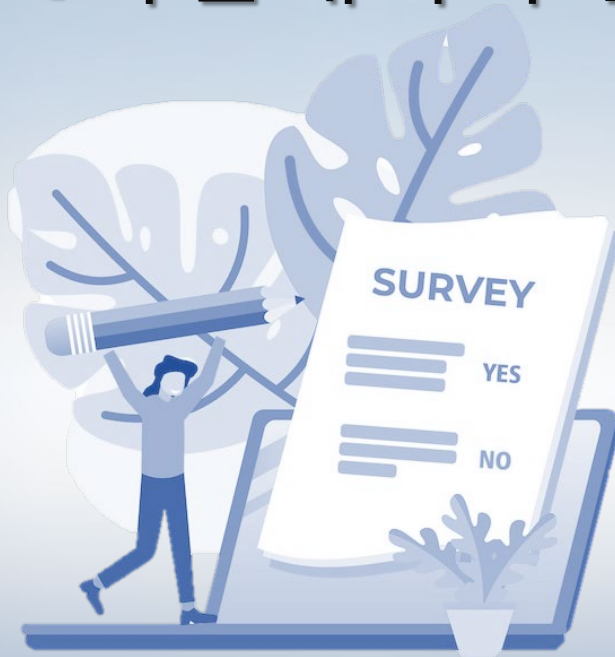
재직연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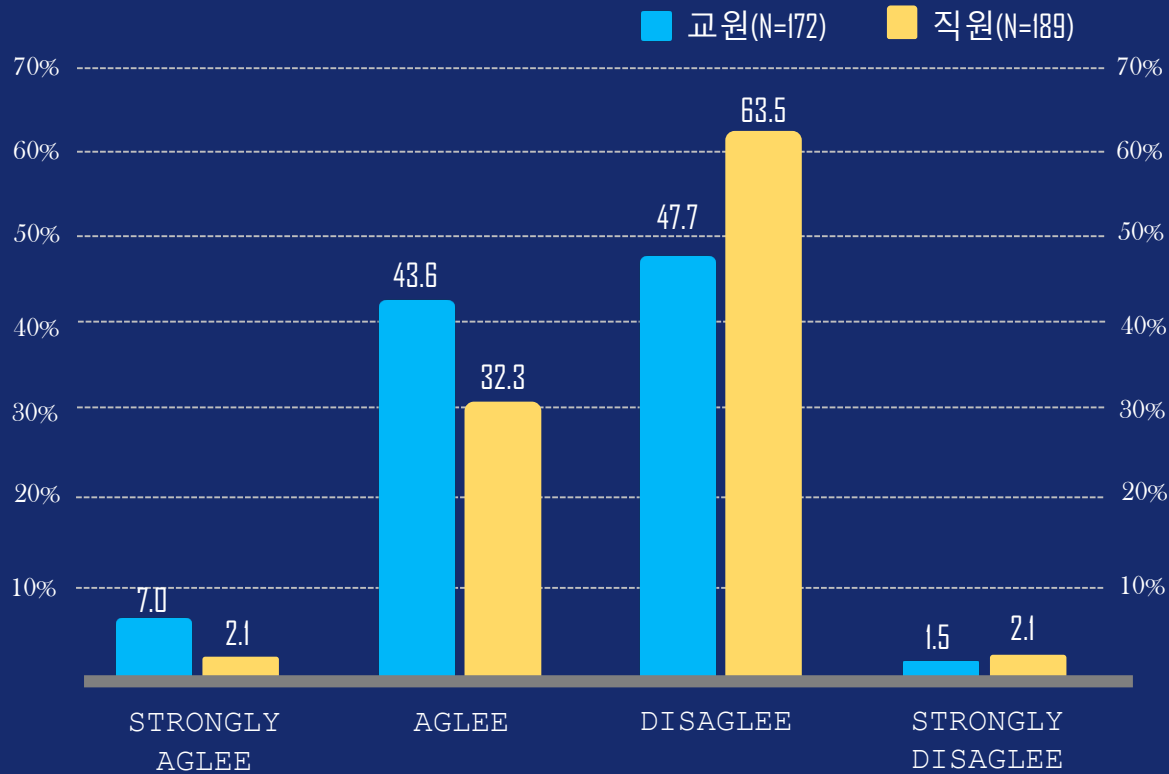
GLOCAL UNIVERSITY 30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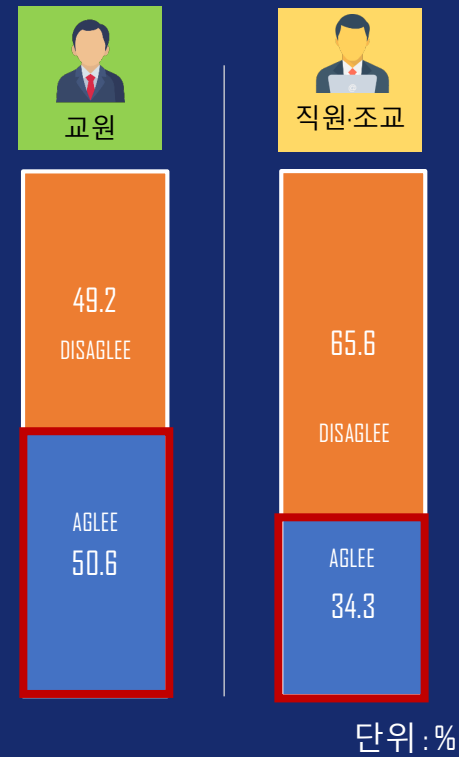
#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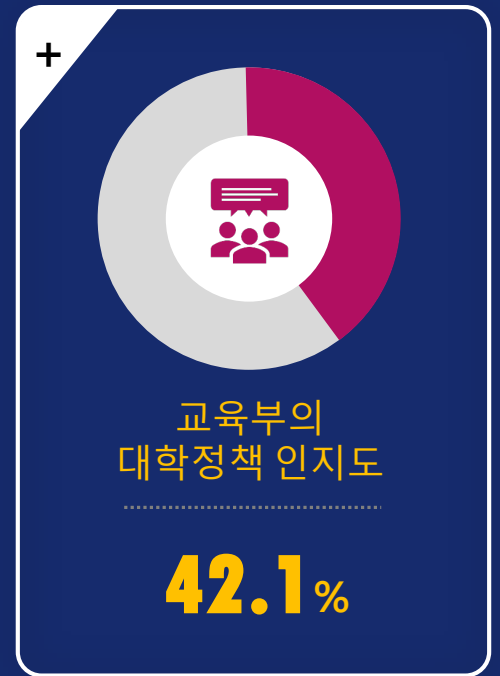
# Q1. 교육부의 대학정책(구조개혁, 재정지원 방향 등)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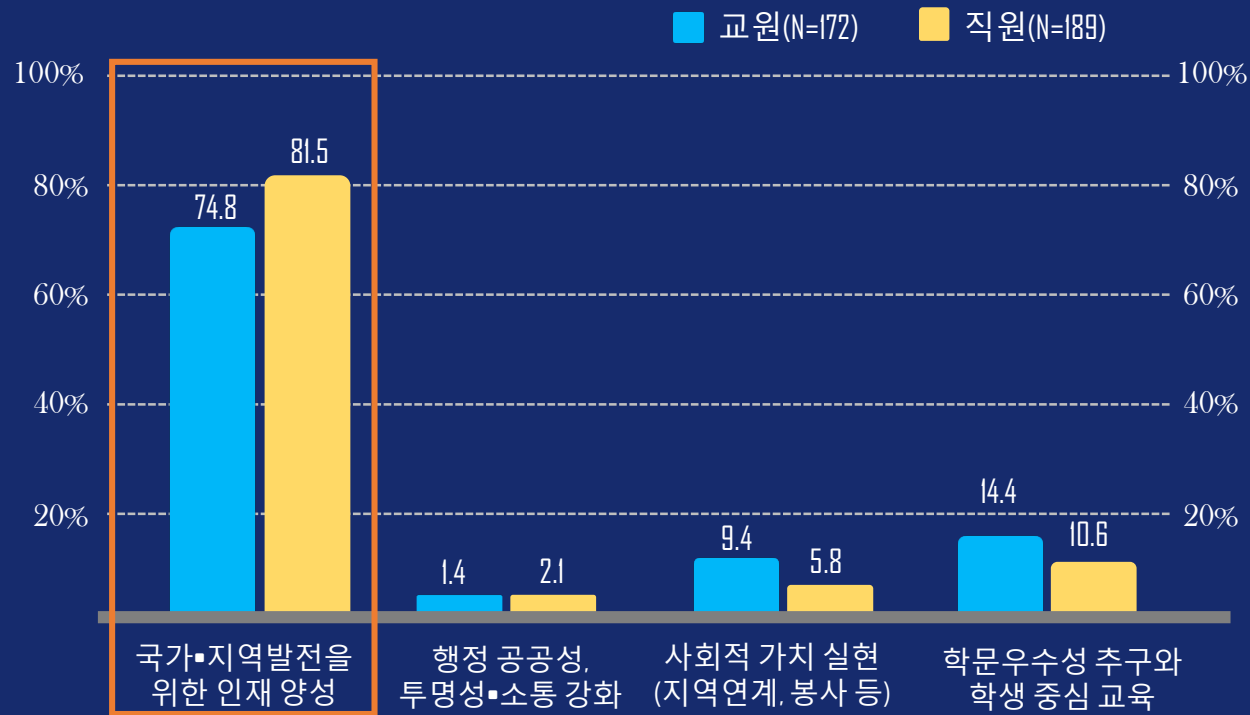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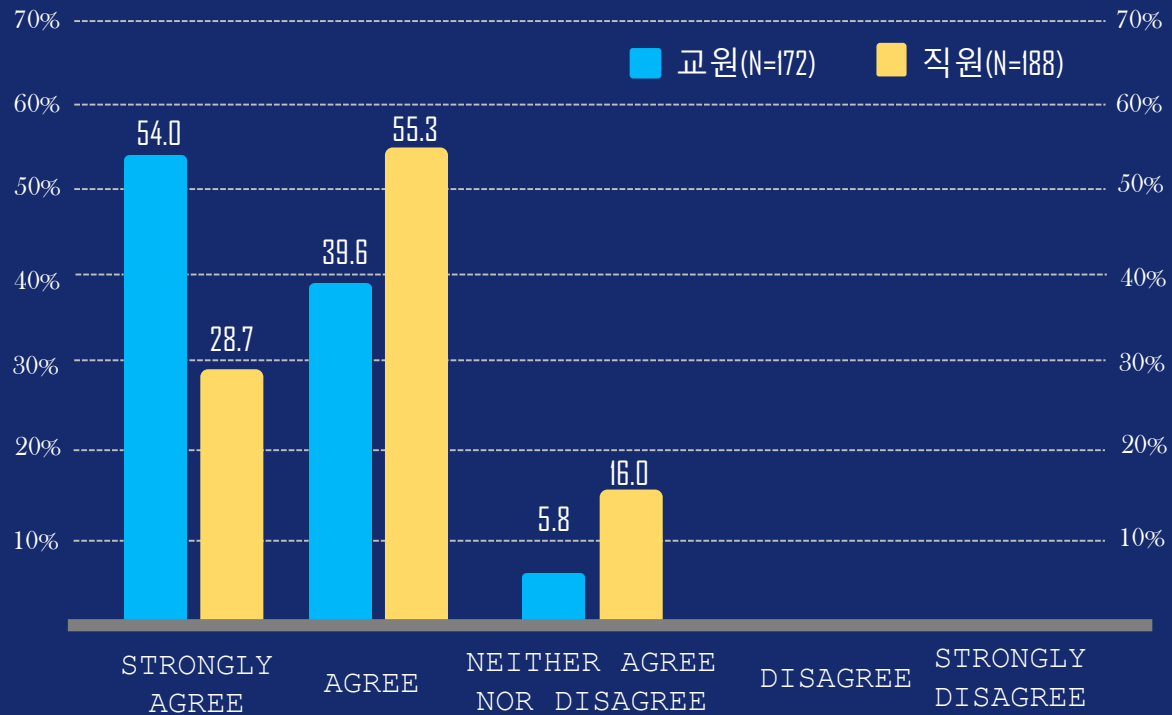


## Q2. 국립대학의 핵심가치 중 가장 중요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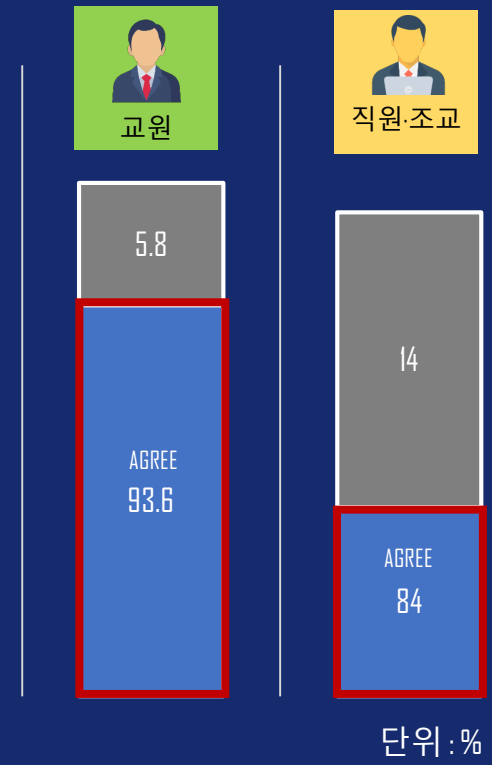


### Q3. 글로벌대학 30사업(강원1도1국립대학모델)의 추진에 대한 관심도

GLOCAL UNIVERSITY 30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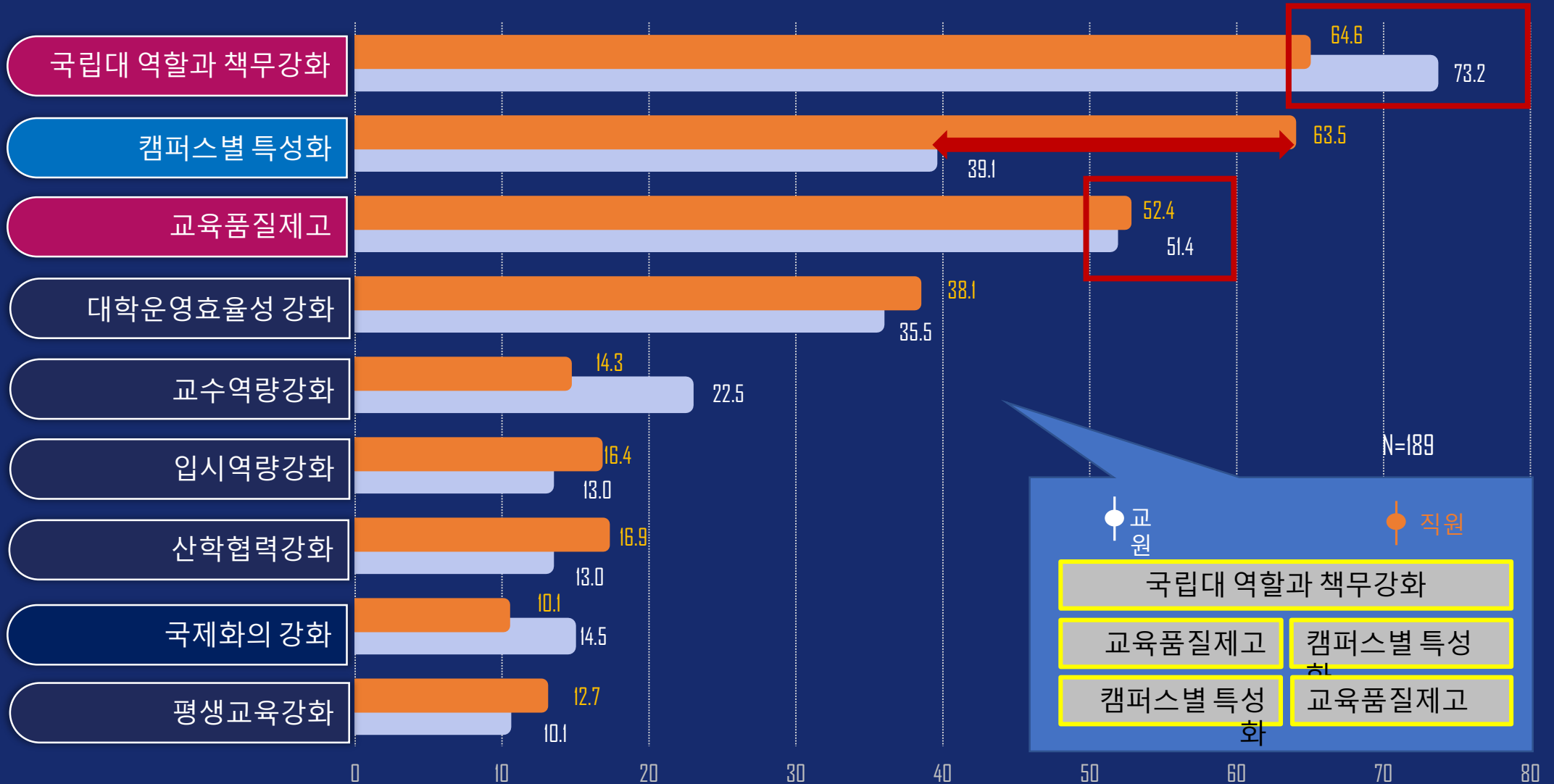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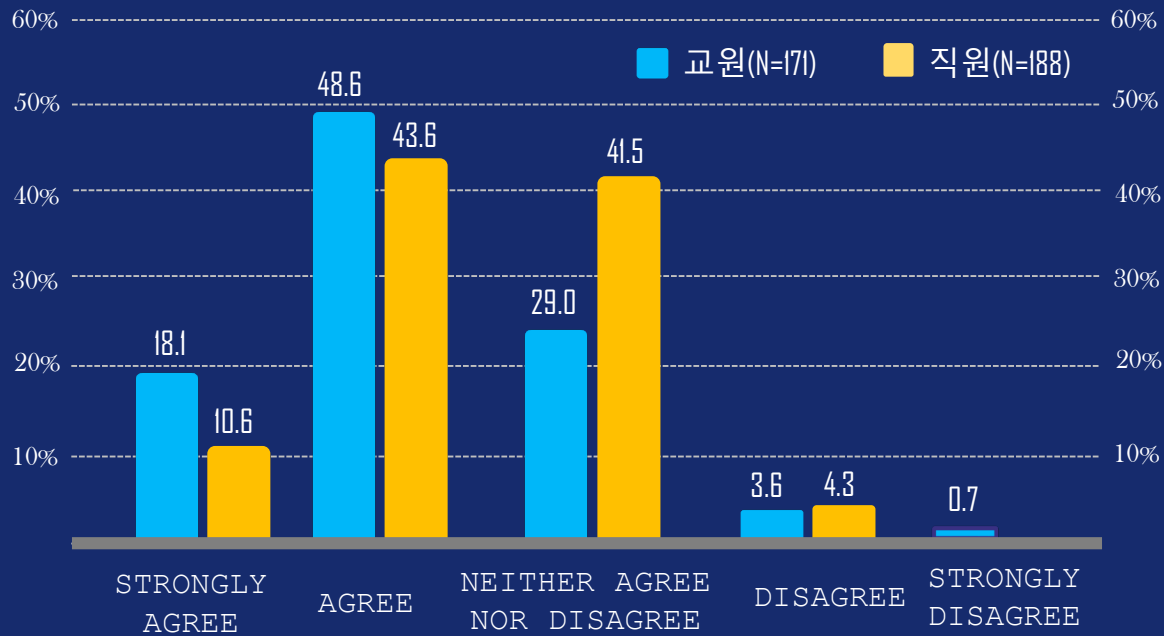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강원도국립대학 관심도

**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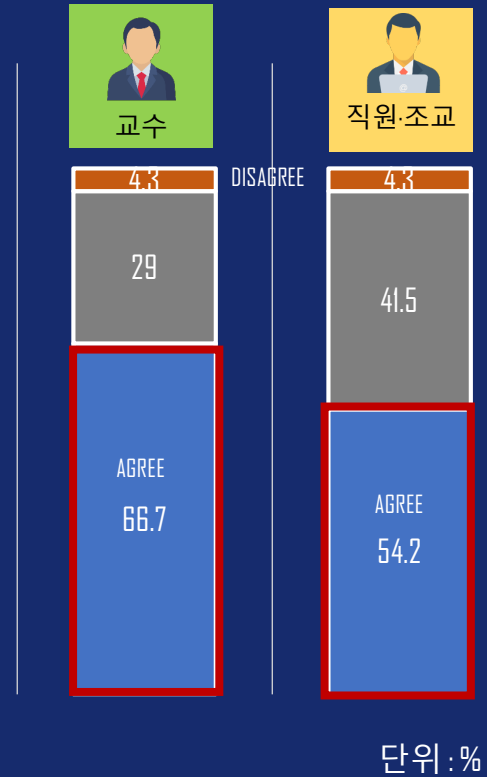
# Q4. 강원1도1국립대학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 요소(복수선택)



# Q5. 강원1도1국립대학의 기본취지나 방향에 대한 이해도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강원도1국립대학  
취지 및 방향 이해도

**59.3%**

# Q6 & 6-1.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강원도립대학 추진에 대한 찬·반 이유

GLOBAL UNIVERSITY 30

교원 N=152

직원 N=187

귀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 계획서 제출 찬반 투표 시 찬성하셨습니까?



YES

91.3%

교원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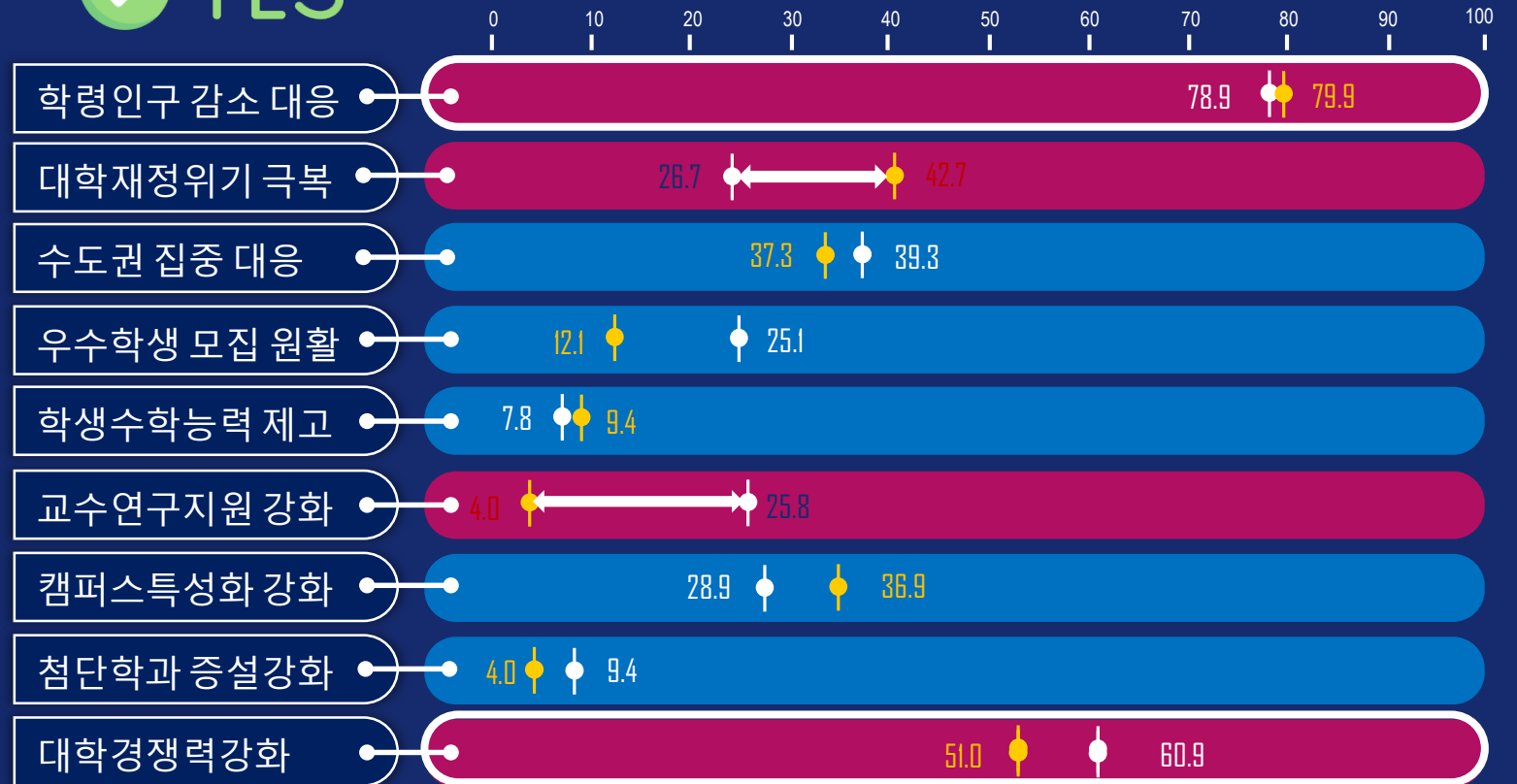
8.7%

78.6%

직원

21.4%

✓ YES



# Q6 & 6-2.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강원1도1국립대학 추진에 대한 반대 이유

N=27



**불평등  
종속**

강릉원주대학교의 정통성 및 자주성 확보 부족과 공생의 지분(?) 불명확 / 춘천캠퍼스 위주의 통합안 강원대에 비하여 강릉캠퍼스 기능 및 역할 축소 / 강원대학교와의 동등한 통합 희망 / 대학간 융합의 어려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방식 / 캠퍼스로서 전략하여 본부로부터 불평등과 불이익 감내 /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미래를 준비해야함은 인정하나, 향후 10년은 우리대학 자생력이 견재하다고 보아짐.. 다소 감정적인 답변일 수 있겠으나 강원대에 종속되는 듯한 느낌을 저버릴 수 없고 머지않아 상하 관계가 될 것임

**불평등**

구성원 의견수렴 과정의 불투명 / 방향성에 대한 설명 부족 / 통합에 따른 구조개혁의 불투명 행정 절차의 투명성 의심 / 통합과정에서의 불이익이나 지역특성을 배제한 행정 / 특성화 내용 미비, 작은 대학들의 상생방향성 불투명

**준비미흡**

결과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통합준비가 미흡하고 각 캠퍼스간 특성화와 독립성을 갖춘 뒤 추진해도 늦지 않음 통합 이후 학과 진로에 대해 명확한 대안도 없이 급히 진행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1도 1대학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급진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통합사유 구체적 계획이 미미하고, 캠퍼스별 학과별 정원 감원하는 부분에만 치중한 것으로 보임 구조조정 및 신분 정년 보장 우려 / 학과 통합으로 인한 재직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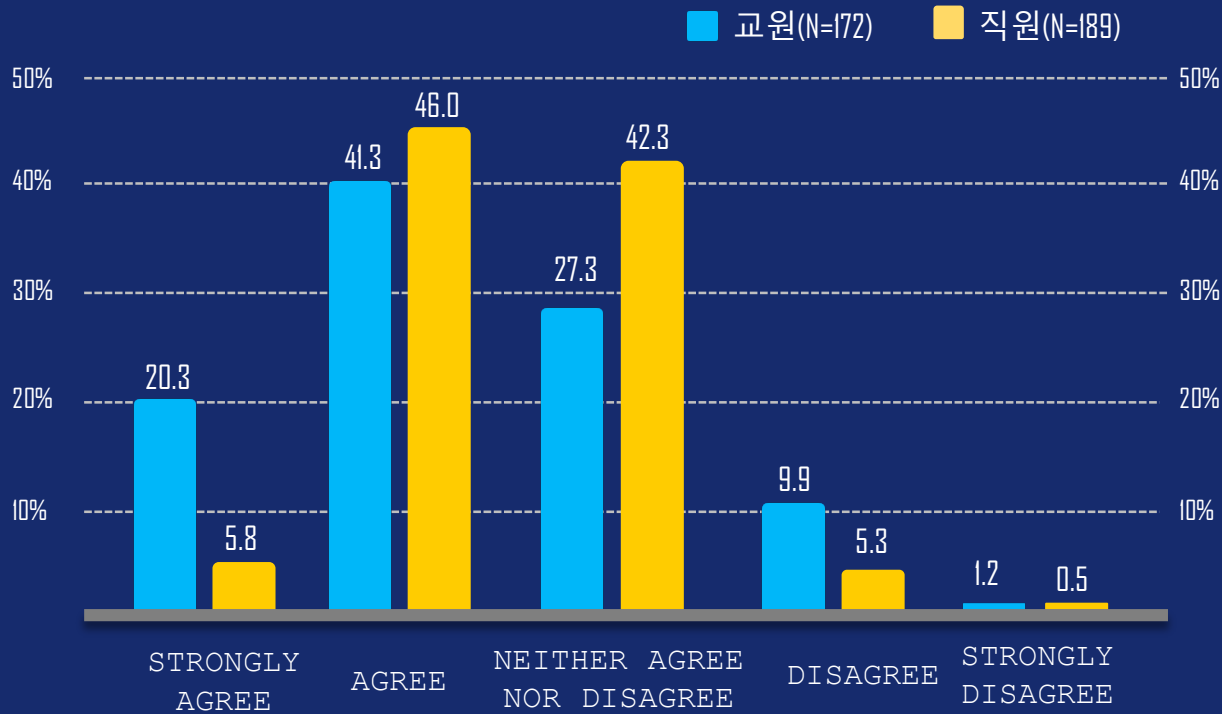
**신분불안정**

교육부 주도의 일방적 지역 대학 구조 개혁 / 국가의 책임성이 1도1대학으로 해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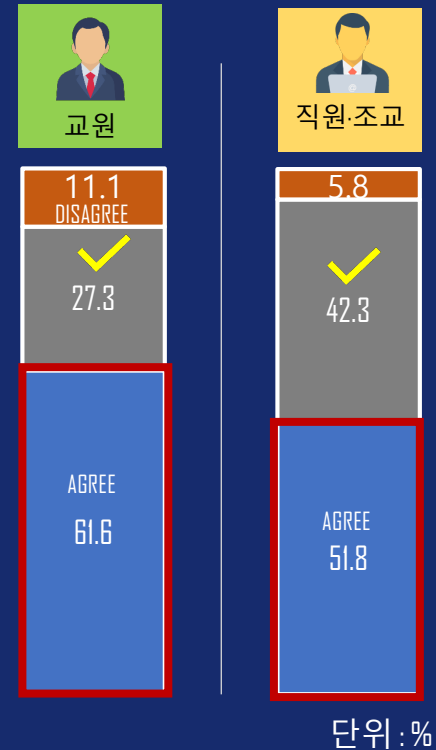
**독립가능성**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강릉원주대만의 역량을 더 키워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막다른 곳에 닿았다고 생각되면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잡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 이번 정부의 일시적인 재정 지원 약속이 우리 학교에 과연 얼마나 투자가 될지 걱정되었기 때문에

# Q11. 강원1도1국립대학 추진의 전반적인 기대 성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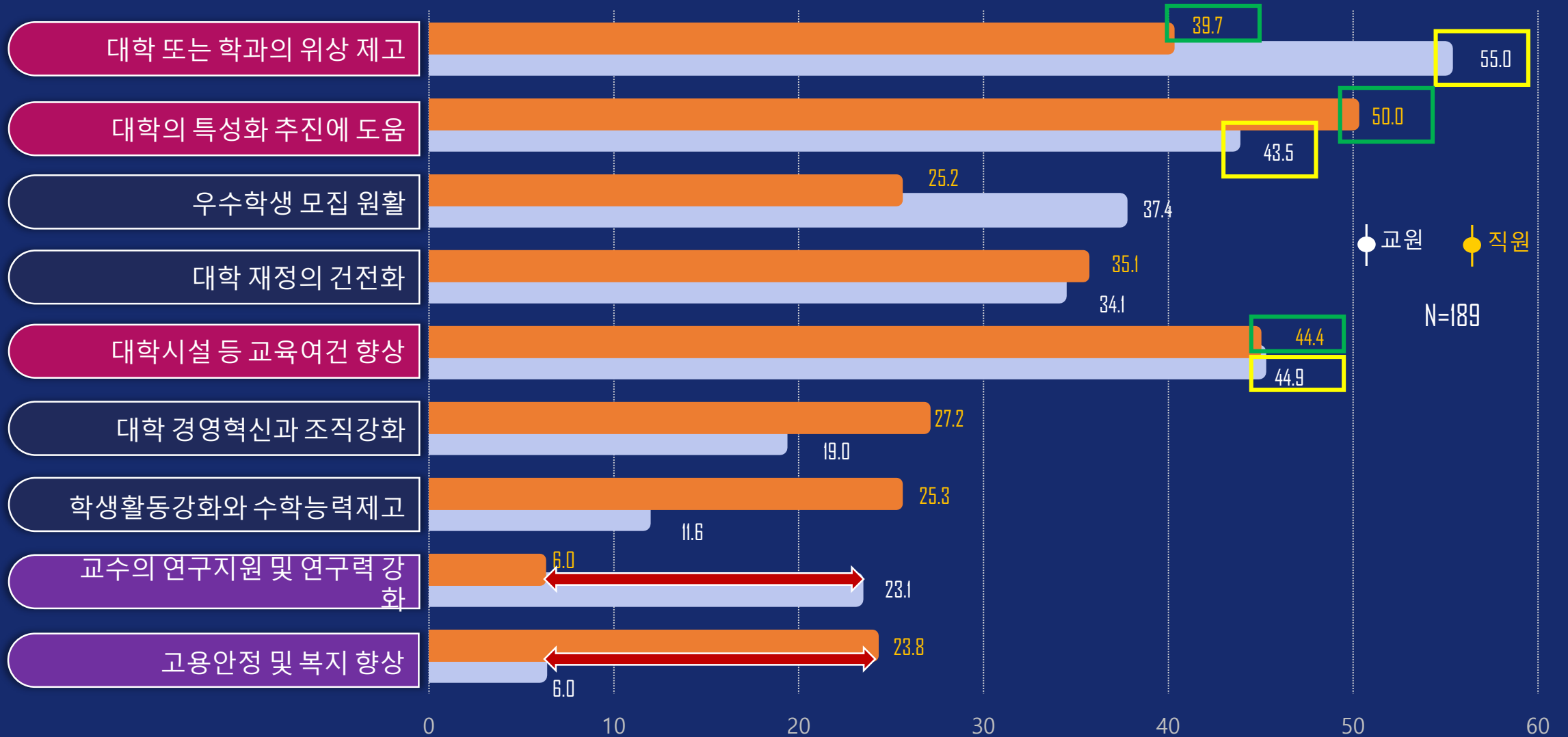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 Q11-11-1. 강원1도1국립대학 추진의 중요한 기대효과 요소





흡수

(교수) 규모가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 병합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우리 대학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듯 함. / **춘천위주의 발전계획**. 이동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은 아닌 듯 / 1대통합의 취지는 몰각되고 **강원대 중심의 흡수통합**의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 **강원대-삼척대 통합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기 때문 / 기계적 캠퍼스 구분. 특히 **교육 연구를 특정 캠퍼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대학본부가 춘천캠퍼스 단일에만 존치되고 부총장의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강원대 총장의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상 **강원대의 정원**과 **예산 지원이 핵심**이고 그 비용은 강릉원주캠이 모두 부담하는 흡수 합병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학내 구성원으로써 **학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함.

(직원) 강원대 중심 / **춘천캠퍼스 위주의 발전 전략** / 특정 캠퍼스에 **편중된 사업운영** 우려 / 학생수 감소는 결국 **캠퍼스별 공동화로**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룰 것으로 보임 / 캠퍼스로서의 불이익 / 삼척대와 같이 **흡수통합**이 될 것임 / **강릉캠퍼스의 입지가 축소** / 인구 공동화 현상과 마찬가지로 큰 대학으로 수요가 몰리면 결국 **우리대학이 더욱 축소될 것이 우려**됨 그렇기에 더욱 대학간 특성화 방안과 전공이나 학생 배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됨 / **규모가 큰 쪽으로** 재정과 학생이 몰릴 수 있음 / 보여주기식의 정책만 시행

(교수) 국립대학으로써 **기초학문에 대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음. 국립대학으로써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 **경쟁력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 (직원) **국립대의 역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봄(타지역과의 특성화 중복 등)

(교수)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관한 소통 과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 학교 발전과 성과를 위해 소수 전공들의 희생,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화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봄. 학내 구성원들에게 **글로벌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중요정보** 없이 보직자 몇몇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생각되어 부정적임 / 통합을 위한 **연계 학과 사이의 연결** 지점을 구하기 힘들며, **비 인기 학과에 대한 일방적인 통폐합을 야기** 시킬 수 있다. / 사업에 대해 누구하나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학과와 전혀 소통**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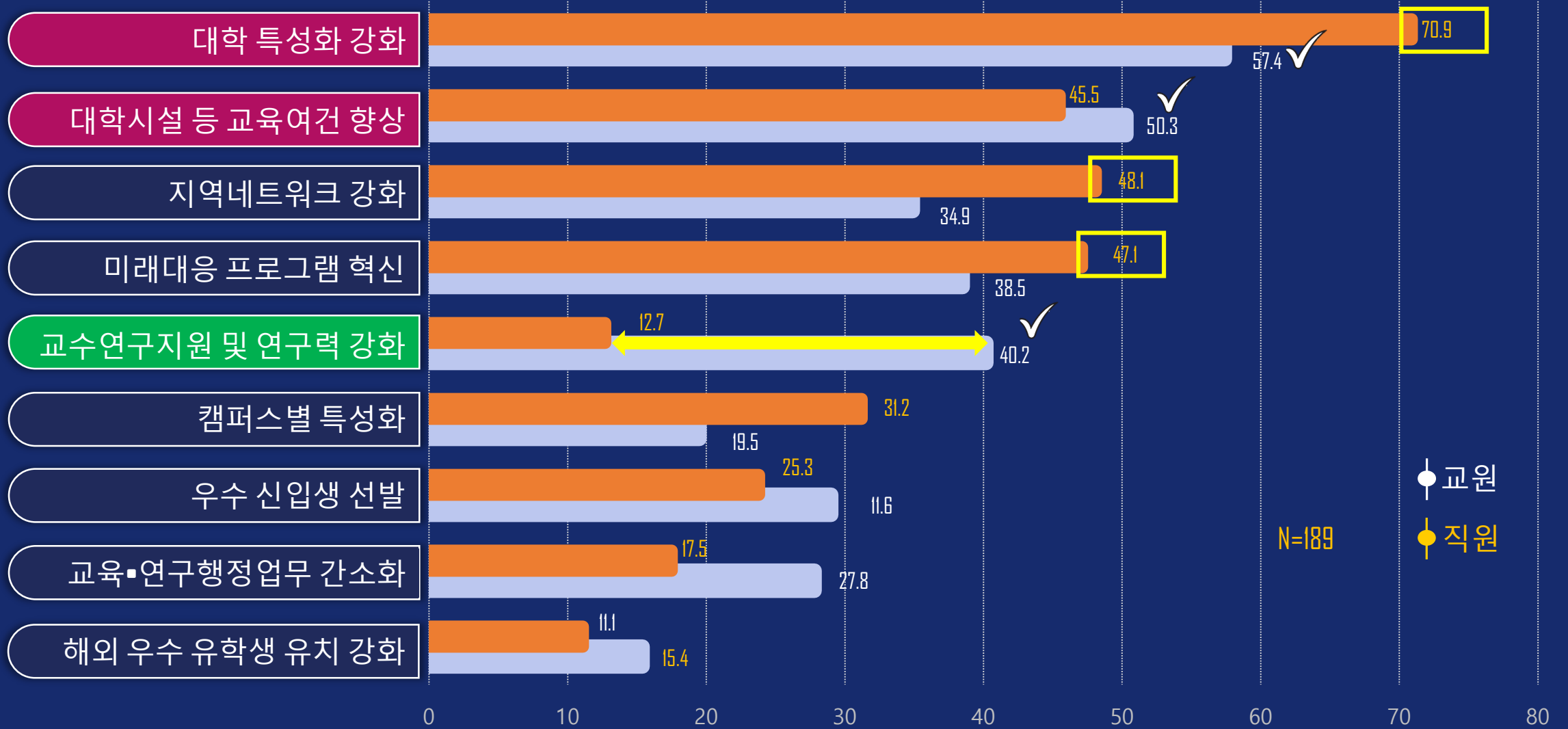
강릉지역붕괴, 인구감소, 학생수감소, **강릉원주대학교 붕괴 및 소멸** / **비전없는 탁상 행정**과 공무원 교수 중심의 사고 방식 /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성에 대한 불확실, 학생, 교수, 직원의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할지에 대한 부정 인식 등 / **고용에 대한 불안정**

국립대 역할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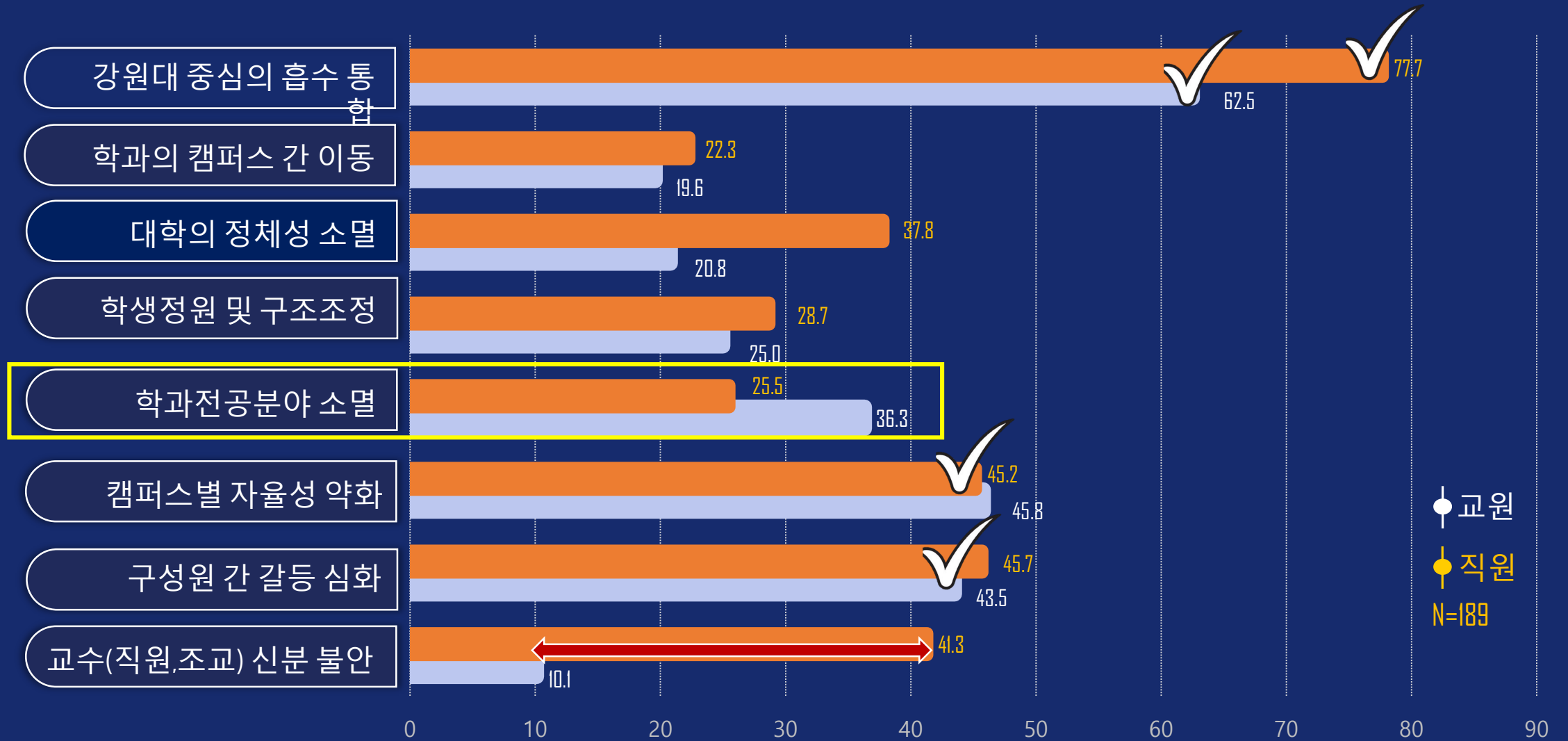
# Q14. 글로벌 대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복수선택)



N=189

● 교원  
● 직원

# Q12. 강원1도1국립대학 추진에 따른 우려되는 요소



## Q14. 글로벌 대학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복수선택)

GLOCAL UNIVERSITY 30

### 기타 의견

- 교수 산학 협력 지원, 우수 인문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캠퍼스별 특성화 유지 / 경쟁력이 약한 학과의 재설계 / 원주캠퍼스의 규모 확대(단과대학, 학과, 입학정원 모두)
- 캠퍼스 균등발전, 원주캠퍼스에 단과대 추가 유치로 학생들을 위한 기본 인프라구축
-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 설정, 캠퍼스별 학과 통폐합 및 재배치, 캠퍼스별 자율성 부여
-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대학과의 추가적이고 동시 다발적인 통합이 추진되어야 불공정한 통합조건이 개선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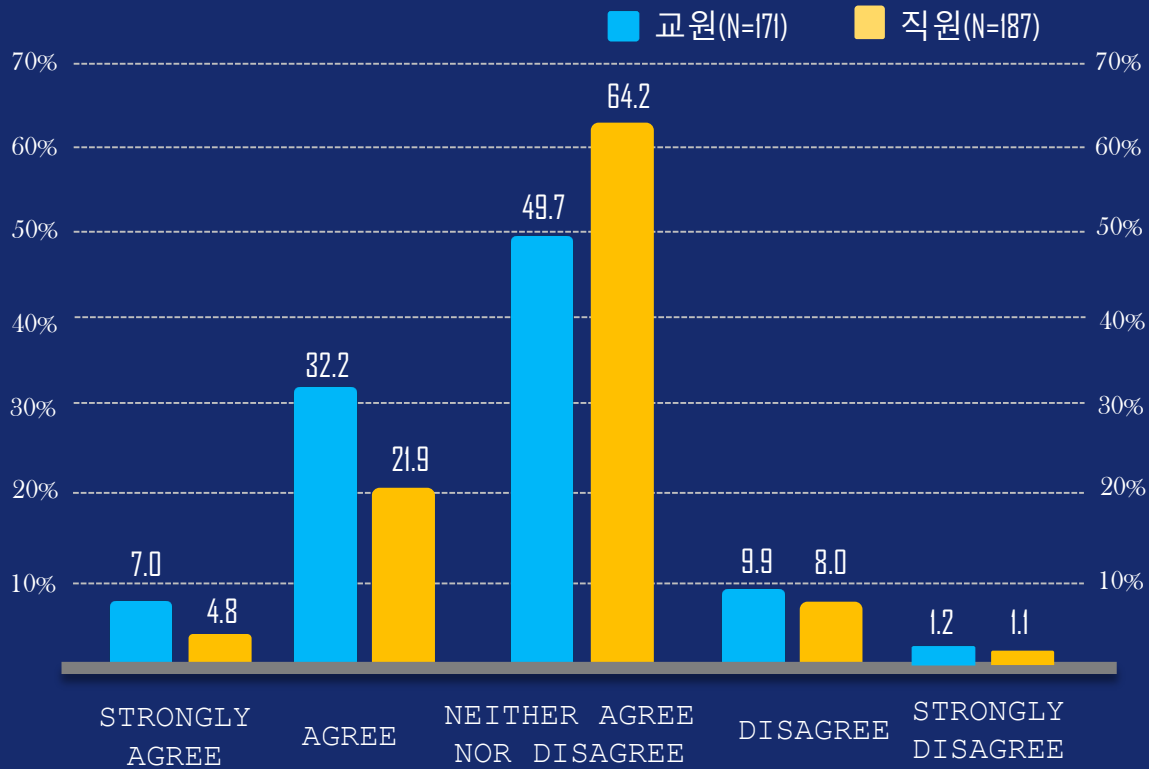
## Q12. 강원1도1국립대학 추진에 따른 우려되는 요소

GLOCAL UNIVERSITY 30

### 기타 의견

-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필요하며, 정체성없는 생존 전략으로 수명만 연장
- 재학생총원율에만 기반해 학과구조조정이 진행된다면 대학의 미래는 없다 판단됨
- 특성화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다수결로만 진행하는 것. 이는 특정 캠퍼스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되는 현상이 불가피. 미국의 상원과 같이, 구성원이 작은 캠퍼스의 의견도 무시되지 않도록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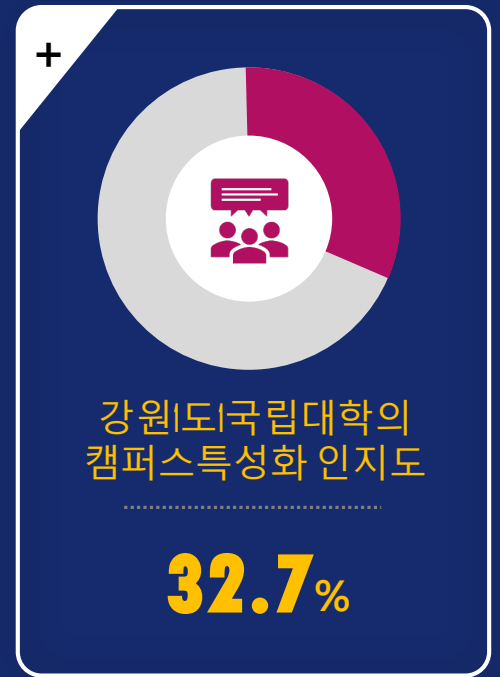
# Q7. 글로벌 대학30사업에 제시된 캠퍼스특성화 분야에 대한 인지도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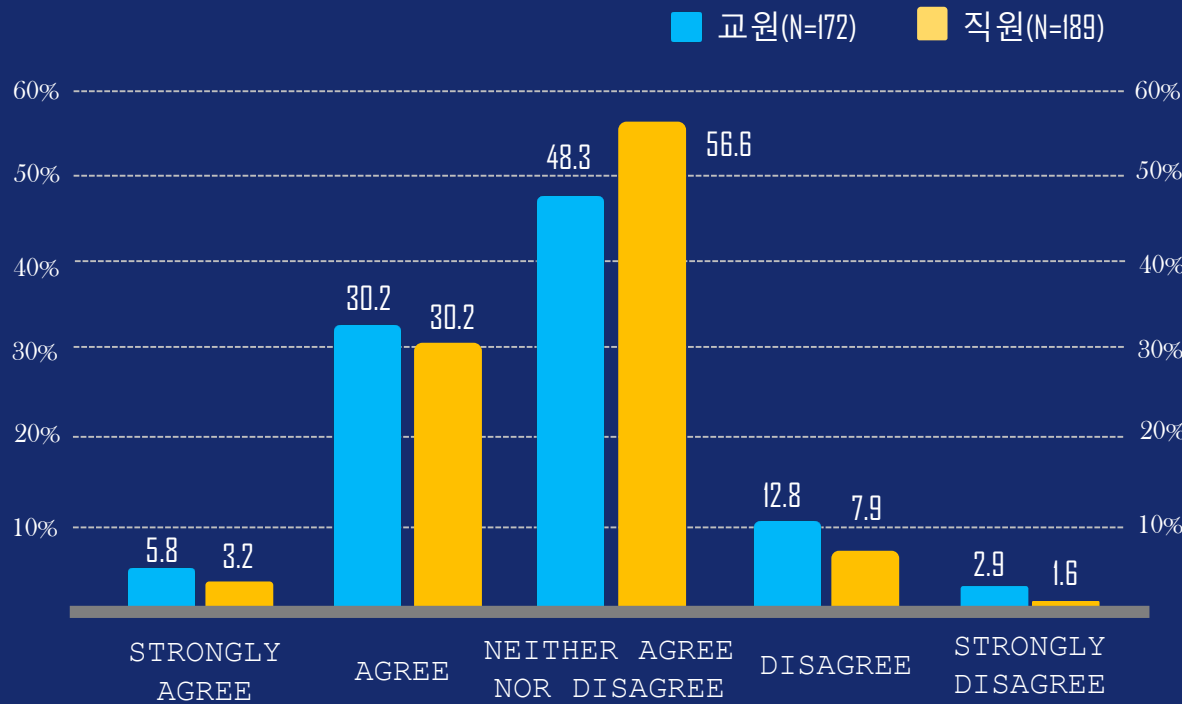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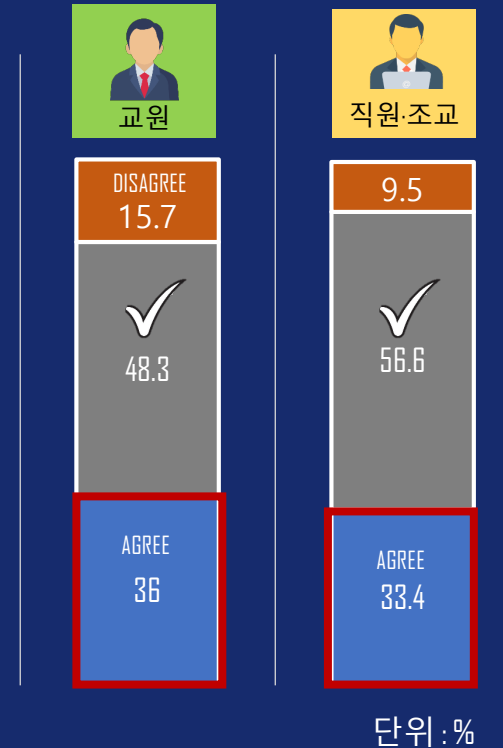
# Q8. 글로벌 대학30사업에 제시된 캠퍼스특성화 분야 설정에 관한 타당성 평가

GLOBAL UNIVERSITY 30

※ 캠퍼스 특성화에 따르면 추천은 교육·연구, 강릉은 지·학·연, 원주는 산학협력, 삼척은 지역산업으로 계획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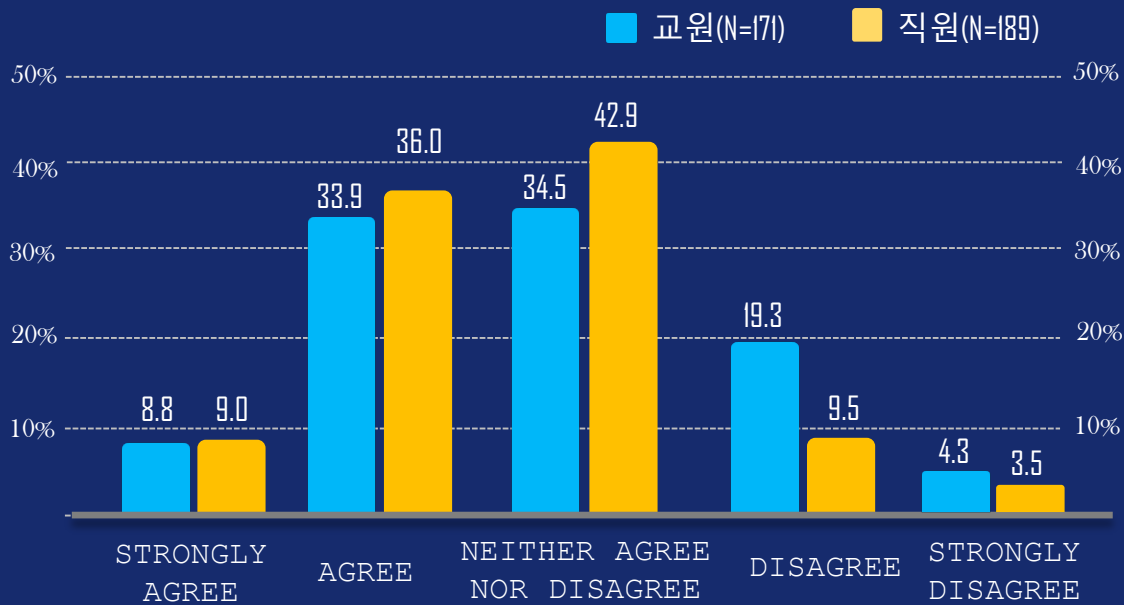


강원도국립대학 캠퍼스  
특성화분야 설정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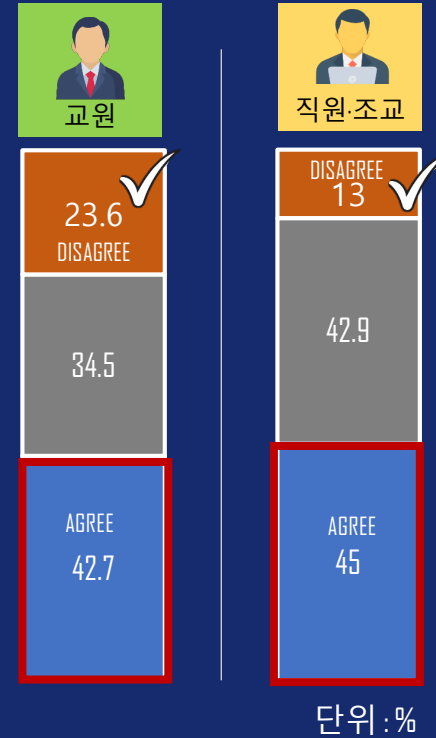
---

34.9%

# Q9. 캠퍼스 특성화가 지역 캠퍼스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지 여부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

캠퍼스특성화가 지역 캠퍼스발전을 주도 여부

**40.6%**

## Q10. 우리 대학의 원주와 강릉캠퍼스 특성화와 관련한 의견 자유 기술

원주캠퍼스에서는 첨단 학과 증설 집중 교육 / 원주의 특성화를 위해서 누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원주캠 규모(단대와 학과) 확대 원주 캠퍼스 특성화를 위해 캠퍼스 규모 확장 필요 / 글로벌 정책은 개인적으로 수도권과 구별되는 지역우수대학의 성장이 중점이라고 생각하지만 흘러가는 상황은 춘천과 원주, 즉 수도권과 가까운 캠퍼스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 아쉬움. 원주캠퍼스 특성화 방향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강릉캠퍼스 특성화의 내용이나 방향은 너무 모호 및 부실하여, 강릉캠퍼스 및 강릉지역 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걱정됨. 통합대학 전체의 1학년 학부교육과 교양교육(이러닝 포함)의 중심을 강릉캠퍼스에서 담당하는 내용을 강릉캠퍼스 특성화 전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임.

삼척을 제외한 나머지 세 캠퍼스의 특성화 근거가 부족해 보임. 사실 교육, 산학협력, 연구, 지역 산업 등 모든 요소가 대학 캠퍼스라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임. 언급된 항목들은 필수 항목으로 하고, 별도로 캠퍼스 경쟁력을 제고시킬 특성화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봄. /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특성화 계획과 실제 진행되는 특성화 내용이 다름. / 강원도 전역을 커버해야 하는 산학협력(지역협력 포함) 등을 한 캠퍼스로 집중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성 부족. 학생취업, 교수연구,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일부 필요한 부분 예컨대 반도체 등만 지역성 살려서 센터 등을 만들어 운영하면 된다고 봄 / 강릉의 경우 영동지역 교육적 측면에서 특성화 요소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 / 강릉-해양, 원주-산업체 / 캠퍼스별 특성화를 위해 독립적인 체제 구축 / 재학생 충원율을 중시하고 국립대로서 기초학문 강화 기반을 등한시한다면 전문대로의 전환 및 취업전문 학과 개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특성과 특성화를 고려할 때 원주캠퍼스 내 산학협력이 가능한 공대 단일화 및 육성 / 원주캠퍼스의 특성화는 산학협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타 캠퍼스와 다르게 산학협력단 분단도 되지 않았으며, 거버넌스에서 산학협력부총장도 원주캠퍼스에 있지 않다. 어떤 측면이 원주캠퍼스 산학협력 특성화의 기본 틀 부족 / 미국 캘리포니아의 11개 개념과 유사한 캠퍼스별 운영 필요 / 강릉 지역은 태백 산맥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으로 지역민의 의료수요가 높는데, 대학병원으로는 강릉에 연고를 두지 않은 울산대 부속 강릉아산병원 뿐이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금번 의대 증원과 함께 마련해야 함. / 신청서에 작성한 현재의 계획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 연구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 학과 의견을 반영한 구조조정 및 학과 지원 필요 / 계획은 좋아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걱정됨 /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은 결국에는 학과 이동과 통합으로 귀결되지 않을까요? 지역 연계성(역사, 문화, 해양, 관광, 친환경, 신소재 등등), 대학 경쟁력(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 지역 균형발전(동서 균형발전) 등이 골고루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릉(원주) 캠퍼스가 경쟁력 있는 학과를 존치·유치하기 위해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 특이사항 없음 / 지역특성에 맞게 운용의 묘를 잘 활용해주기를 바랍니다. / 강릉과 원주의 특성이 고려된 **특성화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며, 강릉의 경우는 특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 강릉캠퍼스 특성화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 / 강릉 지역이 가진 지리적 인프라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강원대 위주로 작성된 일원화 실행계획서**를 보고 매우 실망스럽다 / 결국 최종 목적은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야로 특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원주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가장 큰 대표 도시이자 명확하게 서울/수도권과의 근접성에 매우 큰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릉캠퍼스는 원주캠퍼스보다 규모는 크지만 지리적인 제약이 적지 않은 캠퍼스입니다. 이에 각 캠퍼스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근접성이 좋은 원주의 경우 출장 또는 학생 수급의 자율성이 높기에 산학협력과 연구 중심 산업이 집중되어야 대학의 힘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릉캠퍼스의 경우에는 지역 산업의 교류 및 수도권과의 거리와 무관하게 **학생 수급이 자유로운 학과로 구성**하여 그 학과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산업을 중심으로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처럼 4개 캠퍼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산학, 지학연, 교육/연구, 지역산업 등이 아닌... / 주도적 지역 산업도 변화됨 /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특성화**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원주캠퍼스 다양한 학과 이동 / 서울에서 똑같은 과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그 지역에 특색 있게 과를 경영**하는데 알맞다고 봄  
**원주는 IT등산업특성화, 강릉은 해양과학특성화** / 해외 유학생 유치 주력 / 별 의미 없음. 교수의 발전보다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사회 적응 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 지리적 여건에 맞는 특성화는 찬성하지만, 국립대학으로서 위상과 함께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의 교육수요에도** 부응해야 한다.

원주캠의 산학협력은 이해가 가능하나, **강릉캠의 지학연이란 개념은 애모모호**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과 지향점의 모호함만 대두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강릉캠퍼스의 **동해안 해양수산분야의 특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수립 필요 / 강릉캠퍼스는 **해양 바이오 분야 강화** / 강릉이 바다 옆이라는 이유 만으로, 해양 학과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해양 특성화를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글로벌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함. 현재 해당 학과들의 신입생 총원율을 봤을때 해양은 큰 매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강릉에서 해양 특성화를 했을 때, 과연 학생들에게 갑자기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어차피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과의 이름인데, 해당 학과가 아무리 연구를 잘하든, 연구비를 많이 따오든 고등학생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지표임. **각 캠퍼스의 특성화 주제가 캠퍼스의 미래가** 달린 일인데, 너무 안일하게 세워진 목표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함.

## Q10. 우리 대학의 원주와 강릉캠퍼스 특성화와 관련한 의견 자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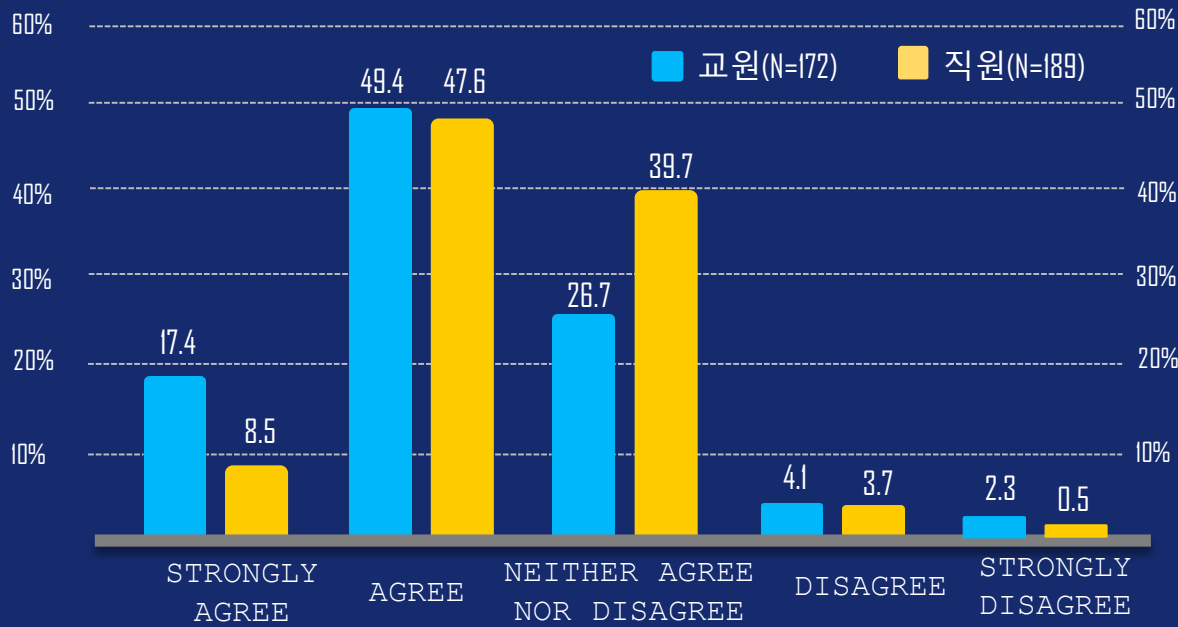
GLOCAL UNIVERSITY 30

대학 장학제도 강화하여 우수학생 유치 절실 / 대학의 가장 중요한 교육과 연구는 모두 교수와 학생에 의해 수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학생과 교수의 대한 배치를 춘천 특성화 사업으로 정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지학연에 대한 학생과 교수 배정은 누가 하고 운영은 누가하며 원주에 산학협력에 참여할 산은 어디 있고 학은 어디 있는가? 결국 저 캠퍼스별 특성화는 실제로 각 캠퍼스에 남는 교수와 학생들이 추진해야 할 몫인데 남는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별로 고루 분포되어있지도 않고 관련 예산과 지원을 받을 수도 없기때문에 실현할 수 없는 공허한 기능이 되어 버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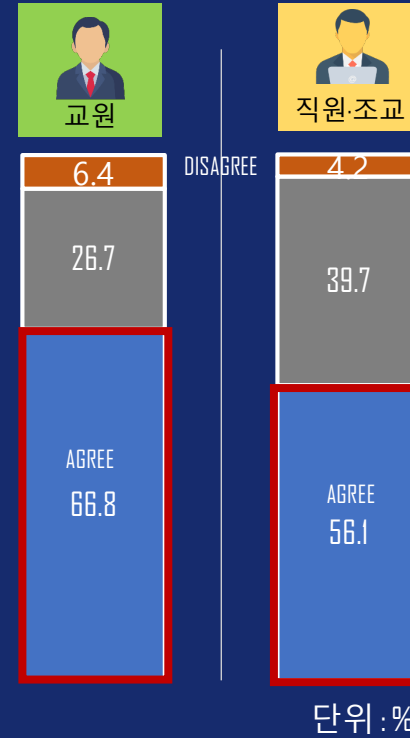
춘천이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핵심 가치이므로, 모든 캠퍼스는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해야 함. 지학연, 산학협력, 지역산업은 교육, 연구 수행 중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활동임. 강원도는 넓지만 인력은 부족하여 지역별 역할 분담하여 봉사하고 과실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춘천은 정책 수립, 거버넌스 등의 사회과학, 보건의료가 특화 분야가 된다면, 원주는 공학계열이, 강릉은 해양생명, 스포츠가, 그리고 삼척은 산림, 방재가 특화분야가 된다면, 순수한 사람들이라면 동의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러한 배분은 변화를 초래하므로 기득권과의 갈등이 불가피함. 강등을 병합할 수 있는 것은,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자금 지원임. 특성화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자금을 대폭 지원하여, 기존의 교원, 대학원생,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신입 교원, 지원자들이 혜택만으로도 오고 싶어 해야 함. 그들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 그리고 캠퍼스 별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로 보았을 때, 외국인 학생, 혹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강원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역할을 통합 대학에서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함.

/ 기존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장 발전 /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주와 강릉에 맞는 특성화계획을 제대로 정립을 못한듯 해서 아쉽다. // 교육/연구가 뒷받침되지 않는 지학연(강릉)과 산학협력(원주)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현 특성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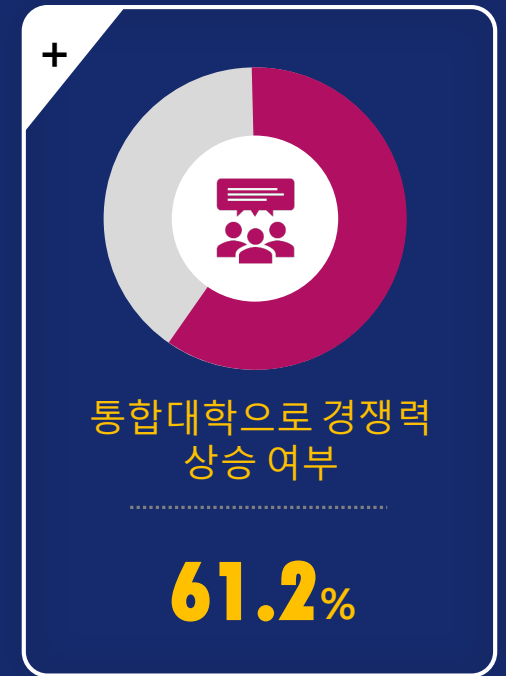
# Q13. 통합대학으로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을 지의 여부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GLOCAL UNIVERSIT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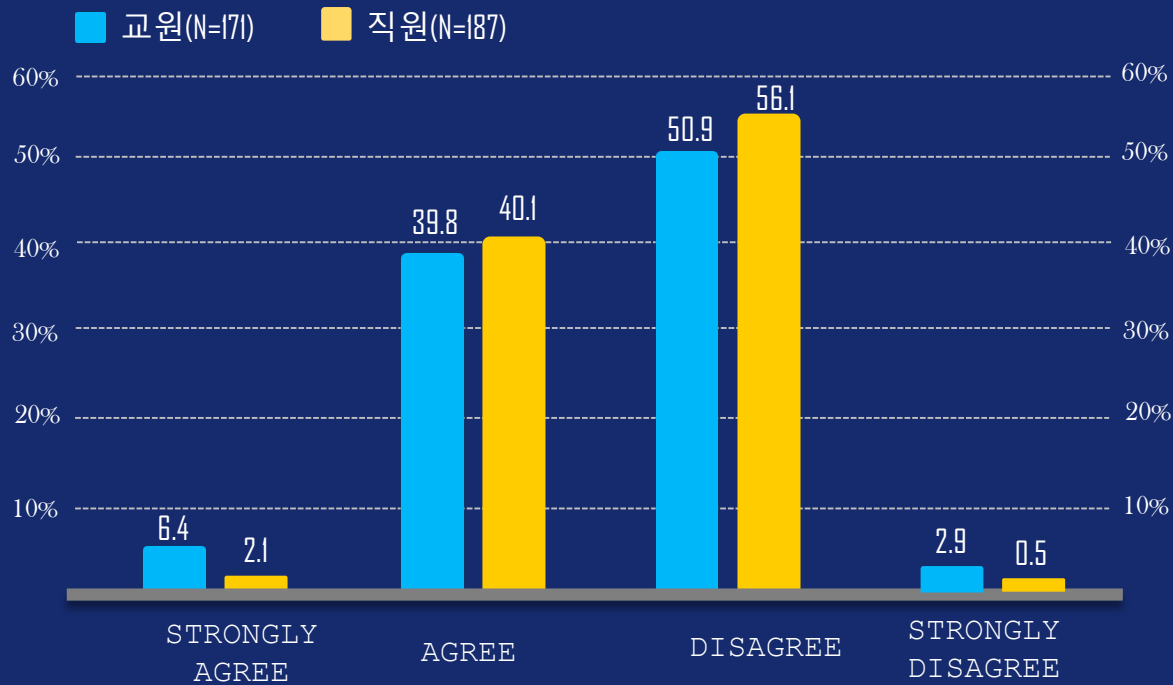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강원도국립대학 추진과정과 방법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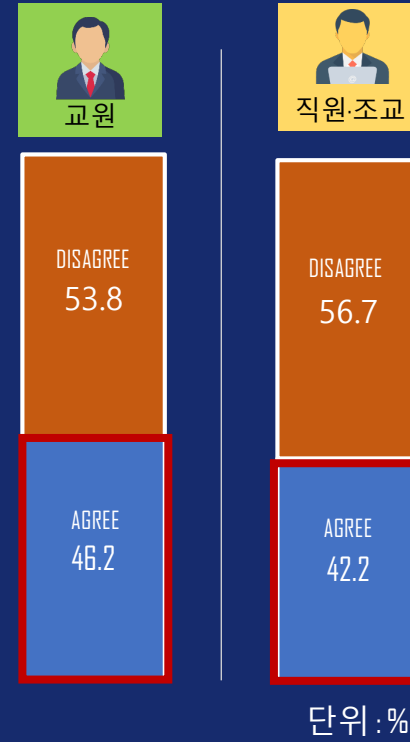


# Q15. 글로벌대학 30 사업 중 강원대와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 내용 인지도

GLOBAL UNIVERSITY 30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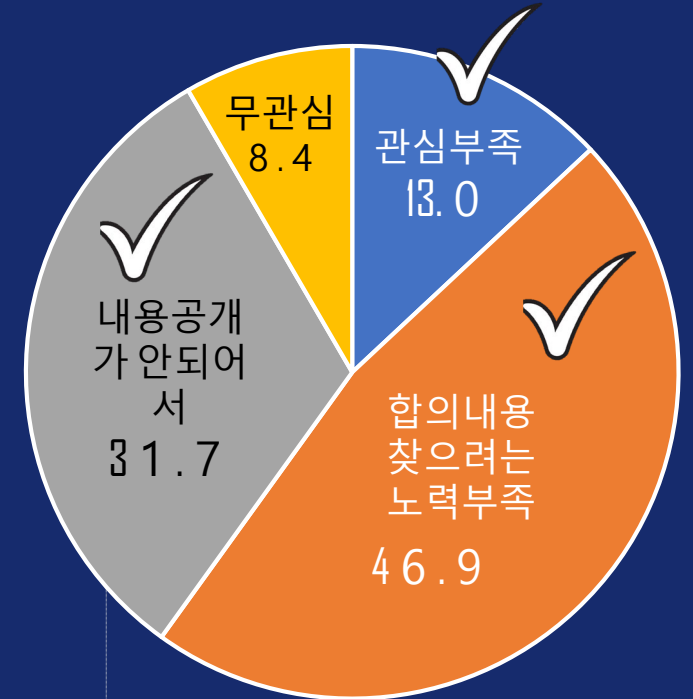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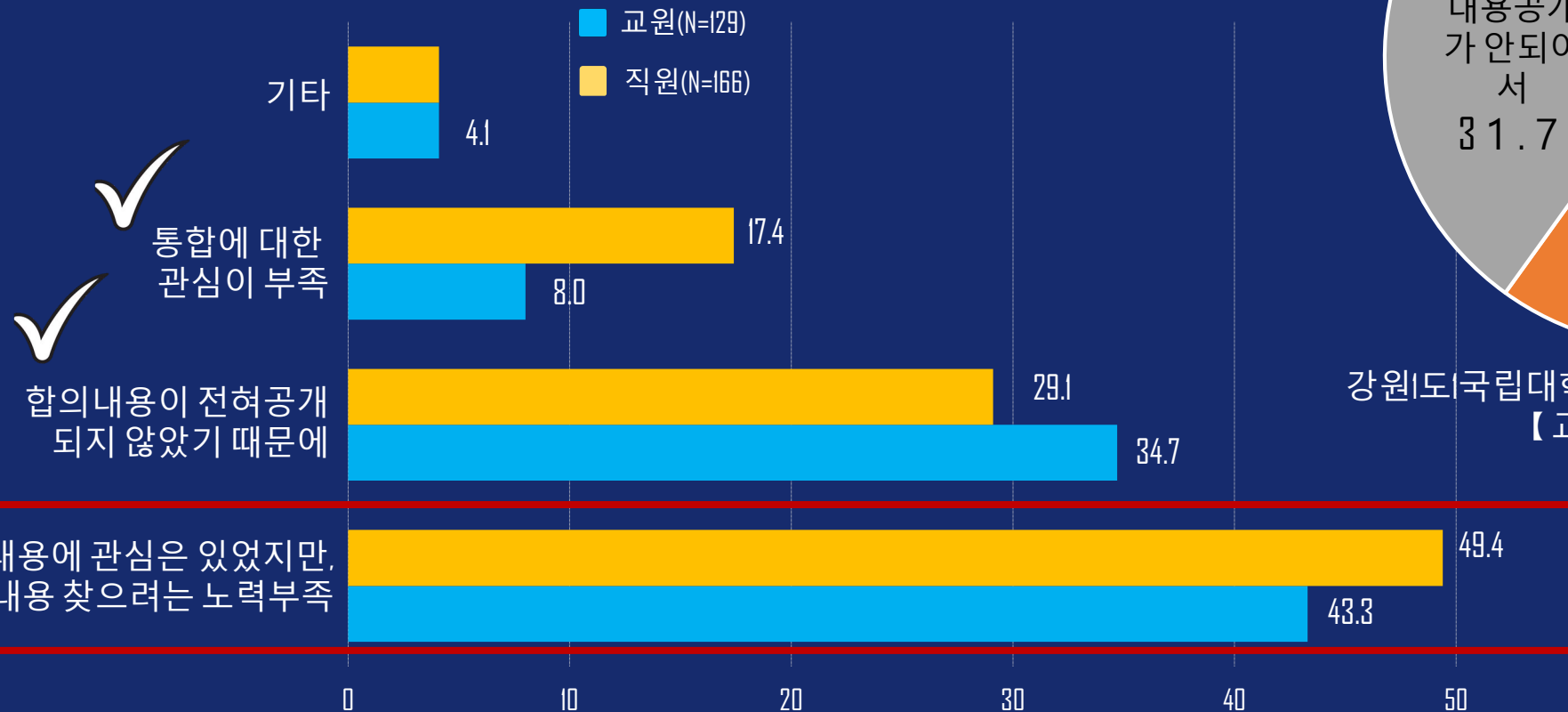
강원도·국립대학의 통합내용의 인지도

**44.1%**

## Q15-2. 통합 내용에 대한 인지 부족 원인



강원도(국립대학)의 통합내용의 인지부족원인  
【교직원 전체 응답】



합의내용에 관심은 있었지만,  
합의내용 찾으려는 노력부족

## Q15-1. 글로컬대학 30 사업 중 강원대와의 통합에 대한 합의 내용은

GLOCAL UNIVERSIT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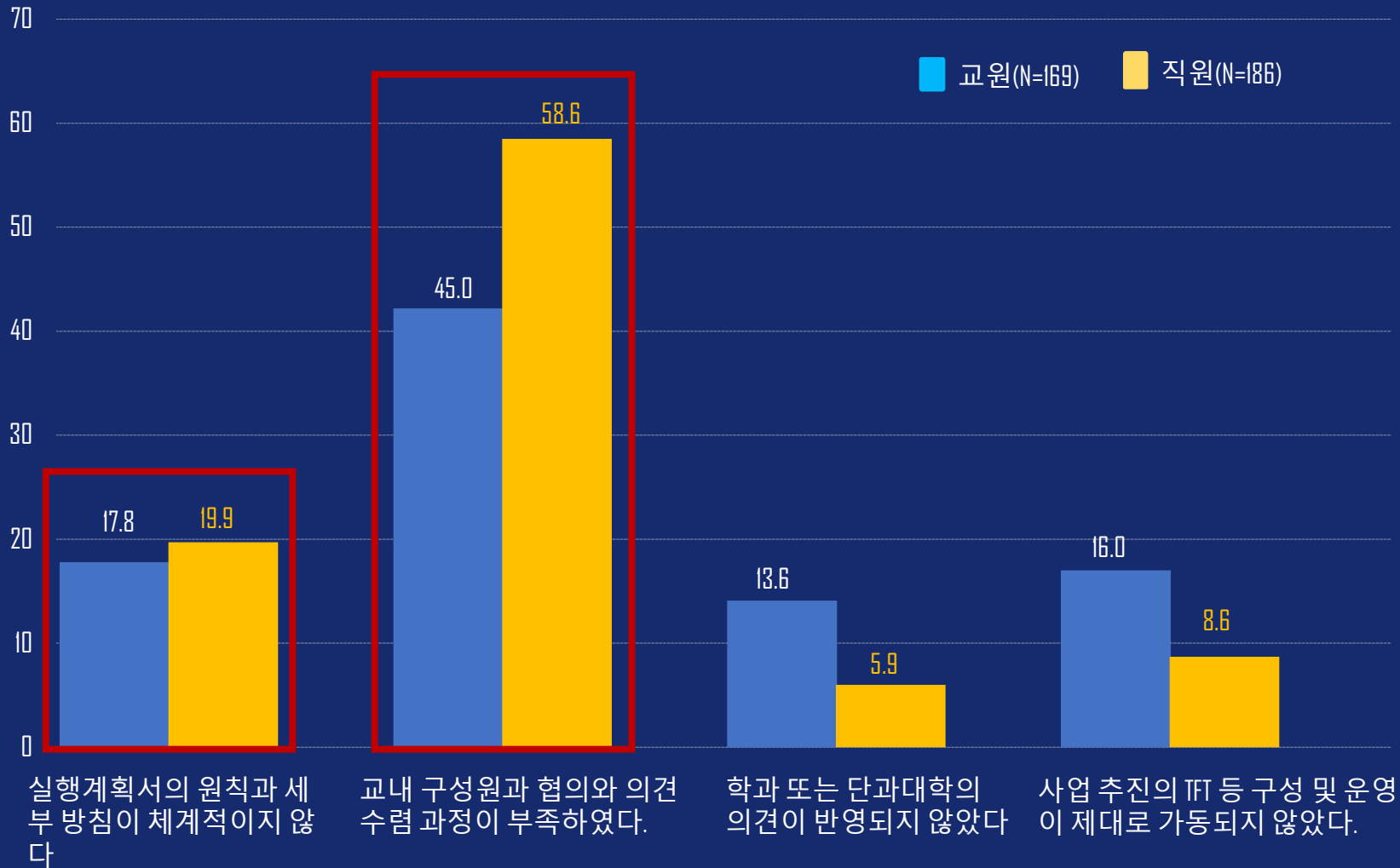
캠퍼스별 특성화, 캠퍼스내 구조조정 / 2025년에는 통합의 세부 내용에 대한 각 대학 내부 및 양대학 사이의 의견 조정. 2026년에는 통합의 세부 내용 확정과 진행 절차 합의 후, 2026년 후반기에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2027년 2월부터 통합대학으로 출범. / 캠퍼스 특성화 및 학과 구조조정 / 거버넌스, 학과 통합 모델 / 거버넌스, 학사재구조화 / 지역별 특성화, 교육과정 공유 / 캠퍼스별 특성화, 학사구조 조정 등 / 춘천캠퍼스에 대학 총장 외 캠퍼스총장을 둔다는 점, 우리 대학의 특성화 분야, 단과대학 통합과 신설 / 캠퍼스총장과 직능총장 등의 거버넌스, 캠퍼스별 특성화 안 등 / 특성화, 춘천캠퍼스 총장 영향력 강화 / 각대학을 존중하는 가운데 통합, 상생통합 / 26년부터 학교명을 '강원대' 또는 '국립강원대'로 변경, 27년부터 통합 대학명으로 신입생 선발 / 각 캠퍼스 총장, 첨단학과, 자유전공 / 거버넌스, 대학별 특성화 방향 / 캠퍼스 간 학과 통합은 없을 것 / 각 캠퍼스의 독립 및 자율성 최대한 보장 (이것들이 잘 지켜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많은 대화를 통해 구성원들이 대체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행되었으면 함) / 캠퍼스 특성화 분야 / 캠퍼스간 학과이동 및 학과간의 통합을 해당 학과에 자율적 권한 부여 / 연구소가 강릉에 없고 원주에 집중되었다는 것 구체적 계획없이 강원대 위주로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것 / 캠퍼스 특성화, 캠퍼스 거버넌스 / 학사구조 재구조화, 유사중복학과 통합 / 2026년은 모든 캠퍼스명칭이 강원대학교로 변경 / 2026년에는 단과대학명이 바뀜 / 학과 및 인적자원의 캠퍼스 이동이 없다는 점,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 실시, 학사구조 조정 등 / 캠퍼스별 재정적 독립성 확립 / 거버넌스 변화, 탑클래스 등 학사재구조화 / 거버넌스(캠퍼스총장)개편, 캠퍼스 특성화 / 학과 간 물리적 통합은 없다. 춘천 캠퍼스 중심으로 3개의 캠퍼스가 유지됨. / 1총장 4부총장 체제, 강원대 중심의 통합 / 캠퍼스별 독립운영, 캠퍼스별 혁신센터 설립 / 캠퍼스 별 독립성 유지와 부총장제, 물리적 이동 없음 / 캠퍼스별 특성화에 따른 5대특성화 센터... / 대학명과 강원대총장이 통합총장이라는 것 / 통합 후 교명은 강원대학교로, 출범 시 총장은 현 강원대학교에서 맡음. / 거버넌스, 학사구조 / 거버넌스와 캠퍼스 특성화 / 통합대학명은 강원대학교로 한다. 각 캠퍼스별 입학 및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 대학지원, 정원감축 / 정원 감축, 캠퍼스 별 특성화.

캠퍼스별 독립적인 자율 운영, 캠퍼스별 균형 발전 모델 / 학사재구조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캠퍼스별 특성화 강화로 지역혁신 추진 / 강원대 교명 통합 5개 혁신센터 춘천으로 집합 / 캠퍼스 특성화, 탑클래스 통합학과 지원 /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 강원대학교가 통합 대학의 총장 / 교명 강원대로, 캠퍼스별 특성화 / 교명은 강원대학교로 변경 2. 총장 및 주요 대학본부 업무는 춘천으로 모두 이관 / 해양관련학과 관광학과 특성화 계획 / 학사구조 개편 계획, 캠퍼스 특성화 계획 / 5대 혁신센터 강릉 제외 설치 / 1도국립대 출범시 총장은 현 강원대에서 맡는다 / 직원 직급 정원 유지, 강제 파견 금지 등 / 캠퍼스별 특성화 및 학사구조 재구조화(탑클래스 등), 1도국립대학 거버넌스 추진 / 통합교명은 강원대학교 총장은 강원대 총장이 한다. / 캠퍼스별 특성화, 1총장 체제, 2026년부터 시작. / 26년 통합대학 출범, 각 캠퍼스별 독립적 운영 /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중심으로 총장 선출, 글로컬사업 예산이 강원대학교에 치중. / 캠퍼스 이동 금지, 학과 조정 금지 / 지역산업 연계 교육, 연구, 산학융합 캠퍼스 / 캠퍼스별 독립운영, 교명협의, 캠퍼스별 총장 / '학과이동 없음'을 전제로 통합, 각 캠퍼스별 특성화 / 강원대학교 명칭 통합, 총장 부총장 등 권한 및 직책 관련 사항 / 캠퍼스별 특화 거점 구축, 학사 구조 개편 / 1) 교명은 강원대학교로 한다 2) 2026년 통합 출범한다. / 캠퍼스별 독립운영 보장, 통합교명은 강원대학교로 한다 / 거버넌스 개편 계획(총장, 직능부총장, 캠퍼스총장 등), 2026 학사구조 재구조화 추진, 혁신센터 구축 등 / 1도국립대, 학사구조 재구조화 / 캠퍼스별 특성화, 학사재구조화 / 대학간 이동제약, / 캠퍼스별 인사, 재정, 시설 독립 운영 / 총장은 강원대총장, 캠퍼스총장제, 인사 및 재정은 캠퍼스별로 운영관리

# Q15-1. 글로컬대학 30 사업 중 강원대와의 통합에 대한 합의 내용은



# Q16. 글로벌대학 30 사업 선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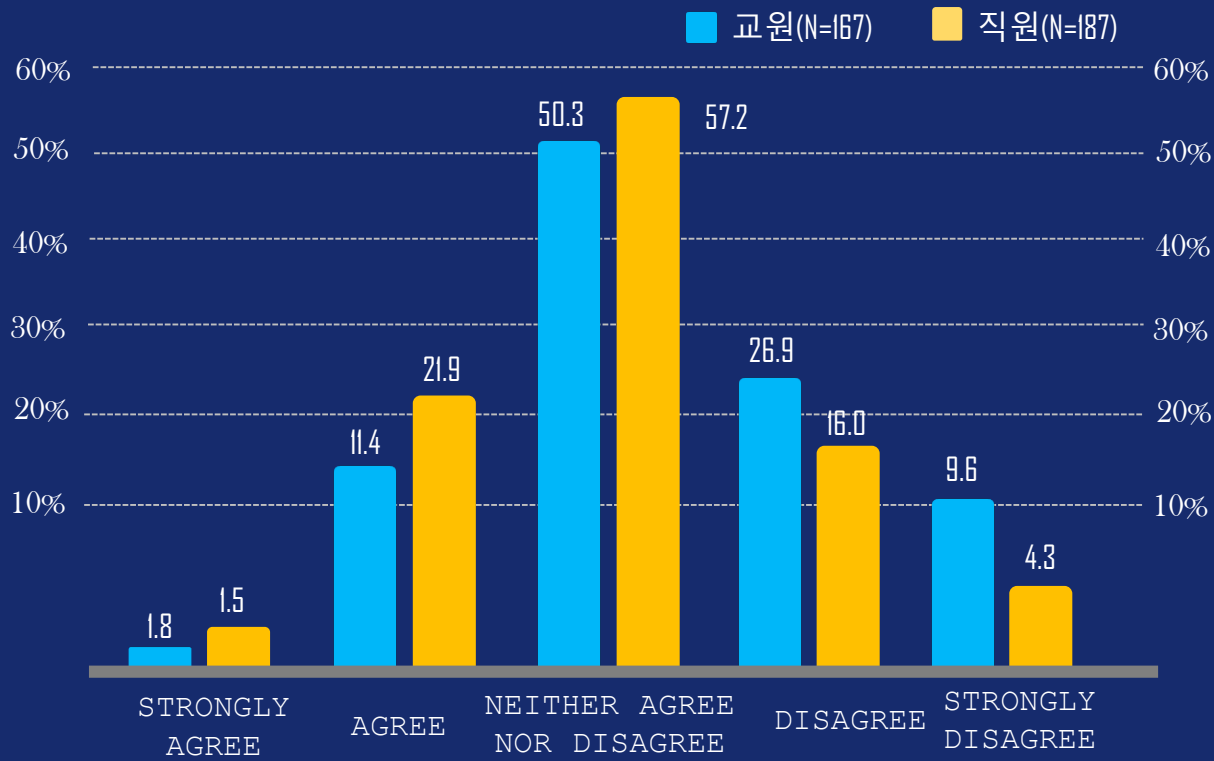


### 낮은 설명력과 의견수렴·반영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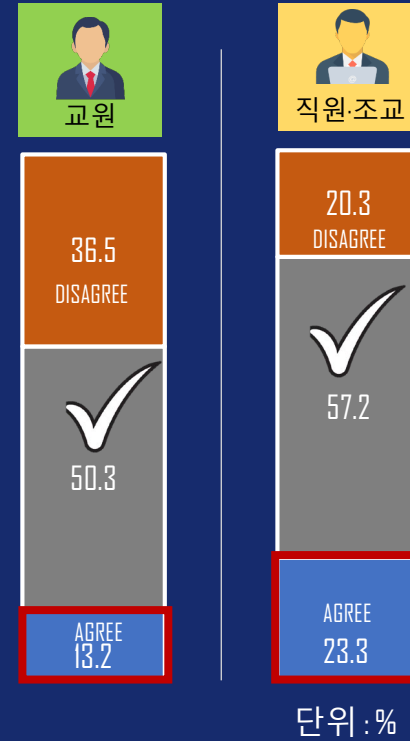
강원대 중심의 추진으로 우리대학의 의견 반영이 적음 /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 사소한 문제들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음. 사업에 선정된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과임. / 학과 또는 단과대학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언급조차 없는 우리 대학 내 단과대학간 통합 내용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인문예술융합대학이란 명칭이 그것이다. 당사자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단과대학에서 올린 계획안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 그럴거면 뭐하러 단과대별, 학과별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가. 마치 상향식 모습을 갖춘 듯 하지만, 실상은 본부 마음대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면, 본부 마음대로 해라. 단과대와 학과에 의견 구하지 말고 / 저의 관심부족인지, 주체부서의 낮은 설명력이 문제인지 아직도 모르겠음 / 정부가 글로벌대학30 사업에 필요한 시한까지 준비 기간이 촉박하여 학내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했으나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한 전략 구체화 필요 / 낯 뜨거운 자화자찬과 자기 껍데 자기가 넘어갔다 /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설명회가 많으면 좋겠다. 설명회 후 변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회로 다시 알려주면 좋겠다

구성원의 직급의 다양성이 있기에 통합합의안이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창구가 부족 / 학교의 추진방향에 따른 공감대 형성 과정 미흡 / 교내 구성원과 충분한 협의와 의사 수렴 과정이 부족하였다 / 결국에는 학교 통합으로 인한 학교 규모 축소인데 통합 안으로 나온 여러가지 방안들이 간결하지않음.../ 발언권이 있다기보다는 전달 받아 듣는 입장이라 잘 진행된 줄 알고 있음 /...너무 많은 의견수렴으로 진행과정이 느려진다 / 실행계획서의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 제출한 의견이 왜 미반영이 된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사업 추진의 TF 등 구성 및 운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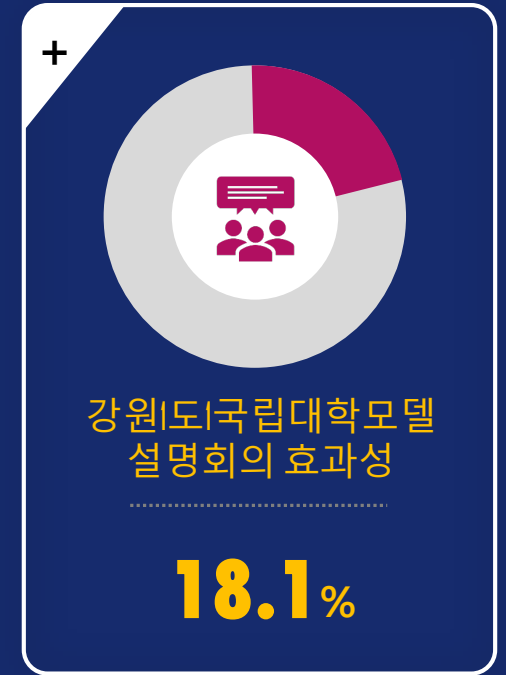
# Q17. 글로벌대학 30 사업 설명회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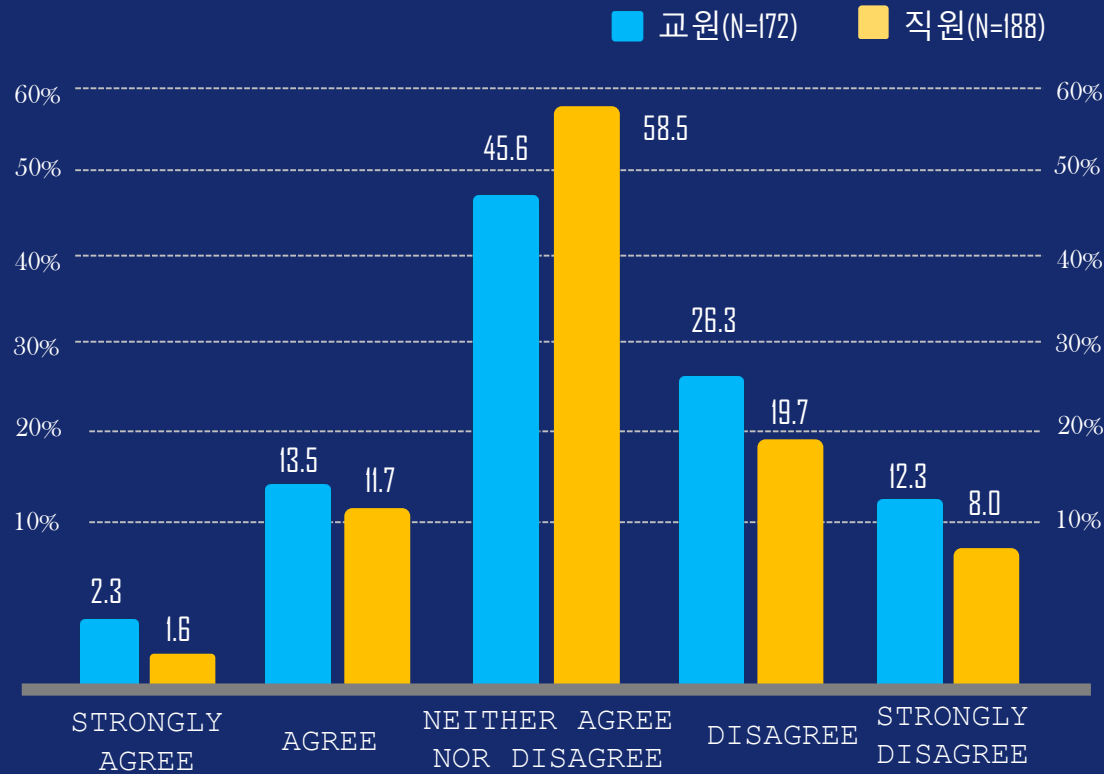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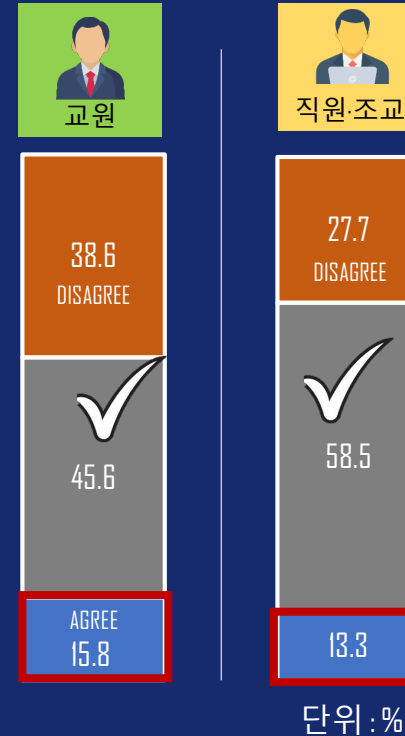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 Q18. 글로벌대학 30 사업 정보의 공유 및 홍보의 노력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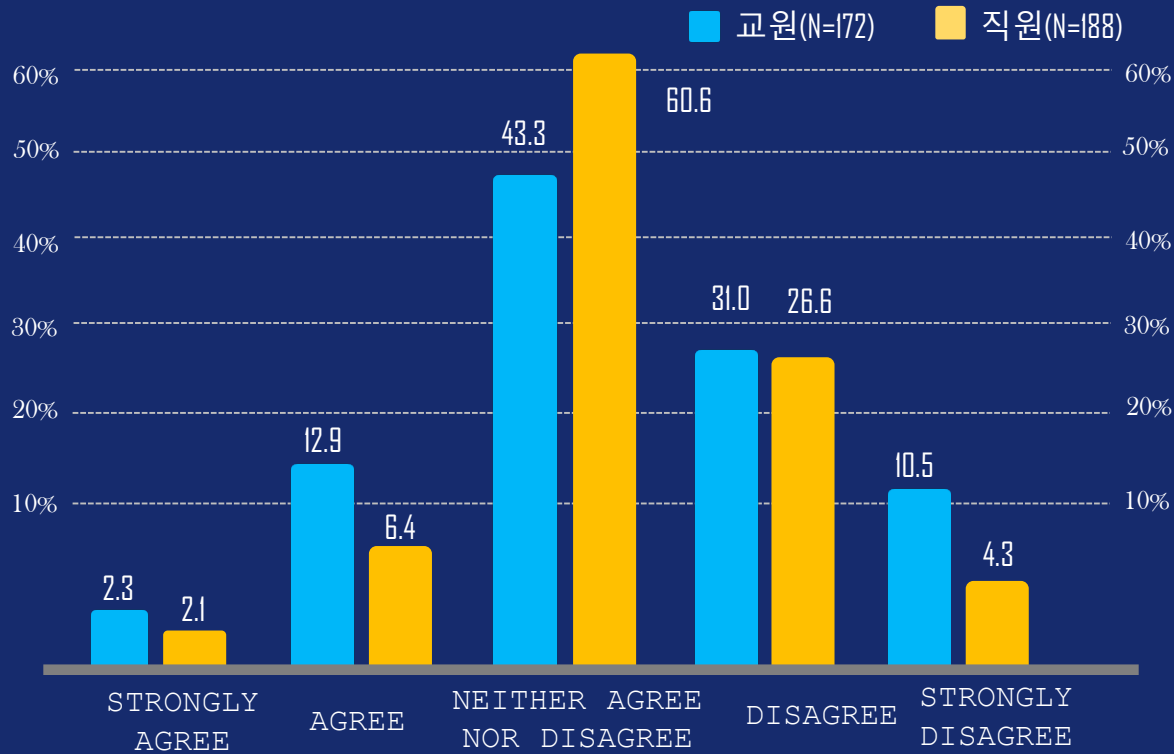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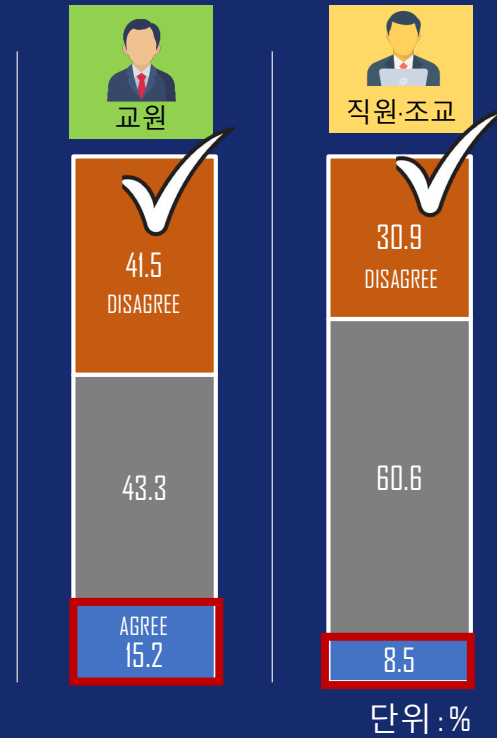
글로벌대학 30사업의  
정보 공유 및 홍보 체감도

**14.7%**

# Q19.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협의와 절차 과정 등의 만족도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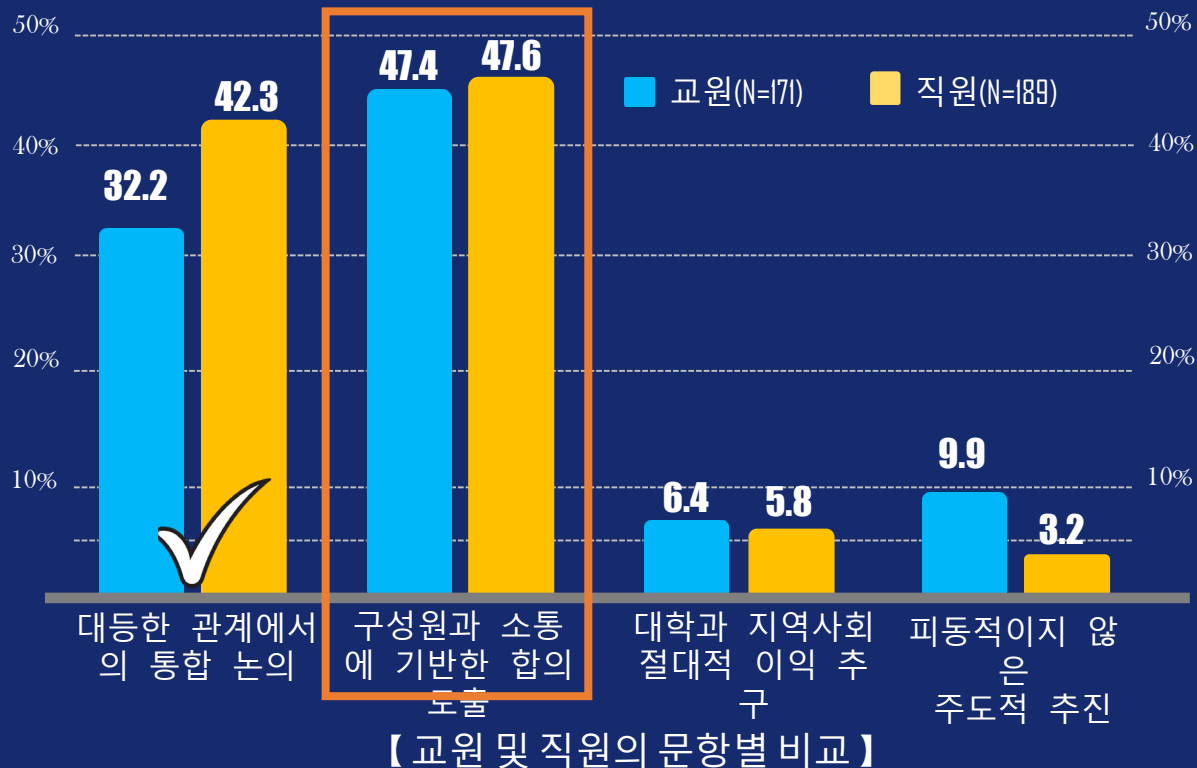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강원대학교와의 통합에 대한 협의와 절차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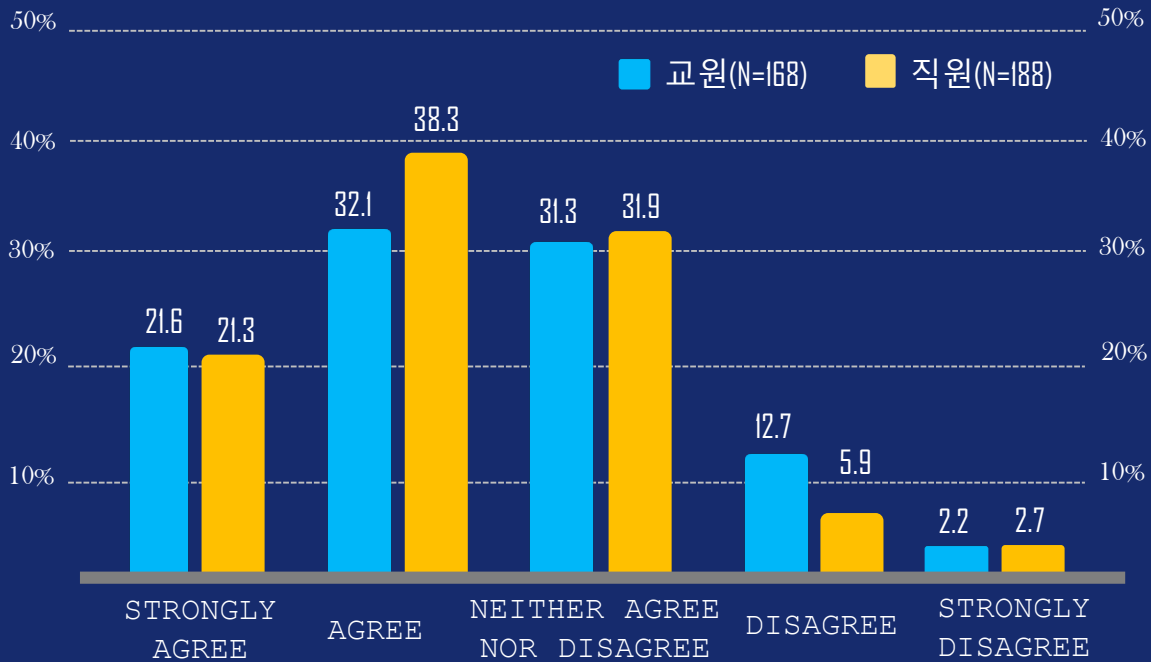
**11.7%**

## Q20. 대학통합 추진 시 우리 대학 본부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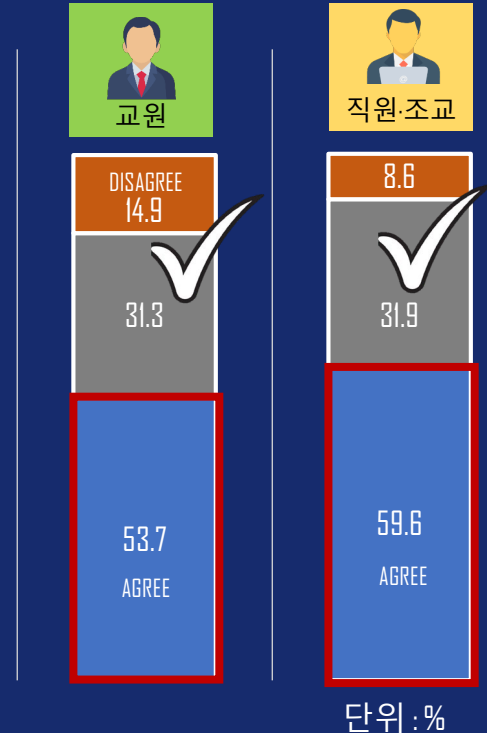


- 효율적인 통합논의 방안 마련 필요
- 합리적인 자세
-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 논의 뿐만 아니라, 구성원과의 소통 및 동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강원대와 통합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다른 대학과 통합할 여지가 있다는 협상카드의 다원화와 각오
- 큰 그림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면 좋겠다. 캠퍼스간 기득권, 지역의 이익이 앞선다면 통합의 의미는 교명 변경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강원대가 더 명심해야 할 점이다
- 원주캠퍼스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Q21. 교육부에 제출한 통폐합 신청서의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의 동의정도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통폐합신청서 문제점에  
대한 성명서 동의 정도

## 57.3%

# Q22. 대학 구성원 의견수렴 없이 통합대학의 교명을 합의한 것에 대한 의견



Don't Go Back **47.3%**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더라도 두 대학(총장)이 합의했기 때문에 번복하면 안된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대학교명을 결정해야 한다  
Go Back **39.6%**

■ 교수(N=171) ■ 직원(N=189)



**27.8%** Don't Go Back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더라도 두 대학(총장)이 합의했기 때문에 번복하면 안된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대학교명을 결정해야 한다  
Go Back **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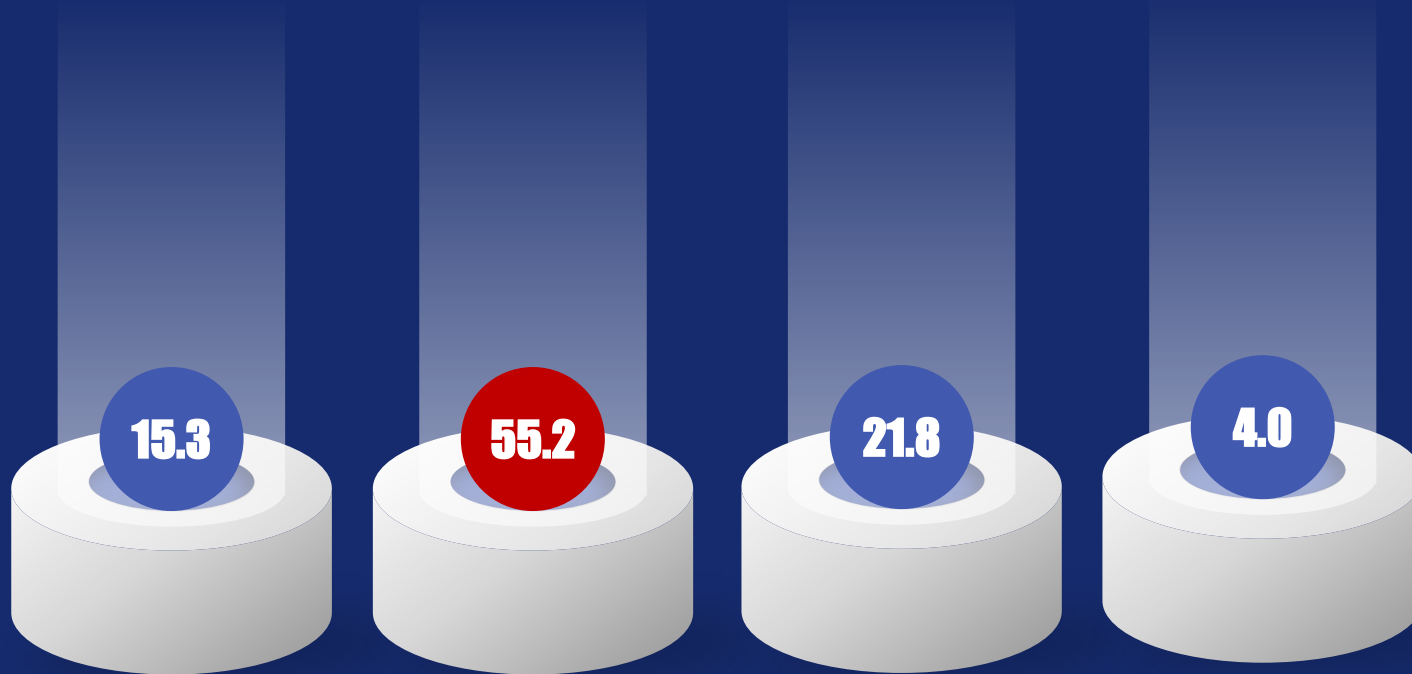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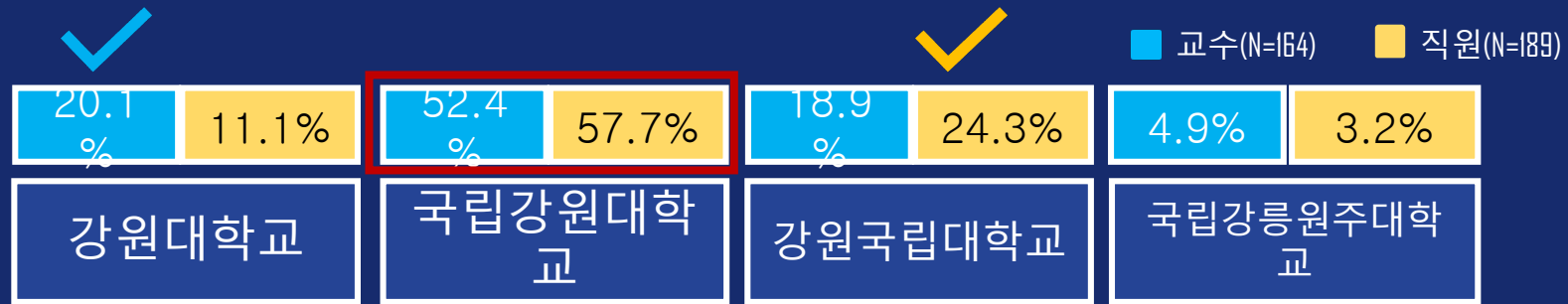


### 절차적 정당성 VS 교명의 타당성

구성원대상 설명회에서 통합 교명은 강원대학교로 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음 /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상징적인 교명이므로 필요하다면 이후 찬반투표를 통해 지지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다시 논의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 사전 의견조사 없이 합의된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대학교로 홍보가 이미 나갔고, 다른 교명(안)이 더 나올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 교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짧은 시간 안에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누구나 심정적으로 강원대학교로 생각했을 것이므로 재논의 필요는 없다 / 교명이 '강원대학교'가 된다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강원대학교에 동의하므로 절차는 의미가 없음 / 강원대학교 명칭에 반대는 없으나, 협의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이 아쉬움 / 강릉의 강, 원주의 원을 포함한 강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지거국의 경우에는 국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 기존 명칭이 가장 보편적 / 교명 자체에 대한 특별한 반대는 없으나 강원대학교 교명을 사용해온 춘천캠의 특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에 반대하며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강원대와 통합이라면 저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우리 대학도 줄여부르면 강원대다) / 합의과정은 아쉬웠지만 '강원' 외에 다른 적합한 이름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 총장은 교명을 정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강릉과 원주에 기반한 강원도의 단일 국립대 이름으로 강원대는 적절해 보인다.

브랜드 파워, 새 교명 결정을 위한 갈등, 행정력 낭비 등을 고려 시 옳음 / 도대학의 취지에 맞춰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교명이라 생각함 / 강원대학교 교명이 적절하다 생각 / 방법과 절차가 잘못되었더라도 강원대로하는 것은 좋은 결정인 것 같다. / 공통점이 강원도라 강원대학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경상국립대처럼 학교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Q23. 만약 통합대학교명을 수정·변경한다면 교명은?



【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

- 연한국립대학 강원캠퍼스
- 강원대학교
- 강원국립대학
- 국립 미래대학교
- 국립 강원 통합대학교
- 강원춘천대학교,
- 강원강릉대학교,
- 강원원주대학교,
- 강원삼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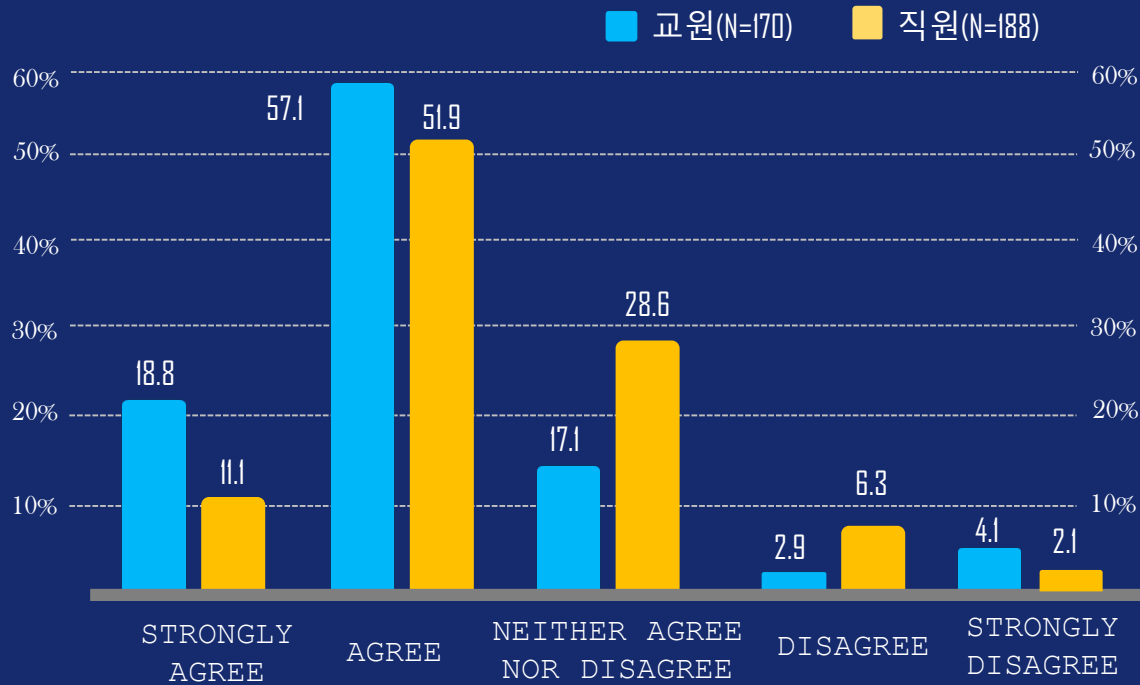
GLOCAL UNIVERSITY 30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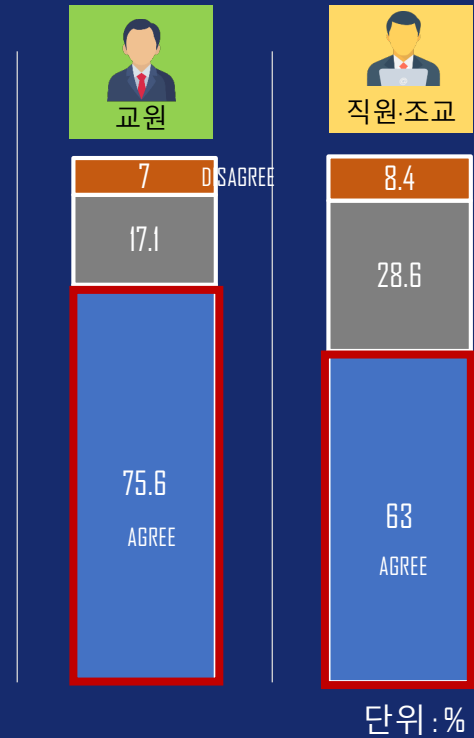
# 강원도국립대학 - 거버넌스



# Q24. 캠퍼스 총장의 재정, 인사, 입시의 독립적 캠퍼스 운영 권한 부여의 합리성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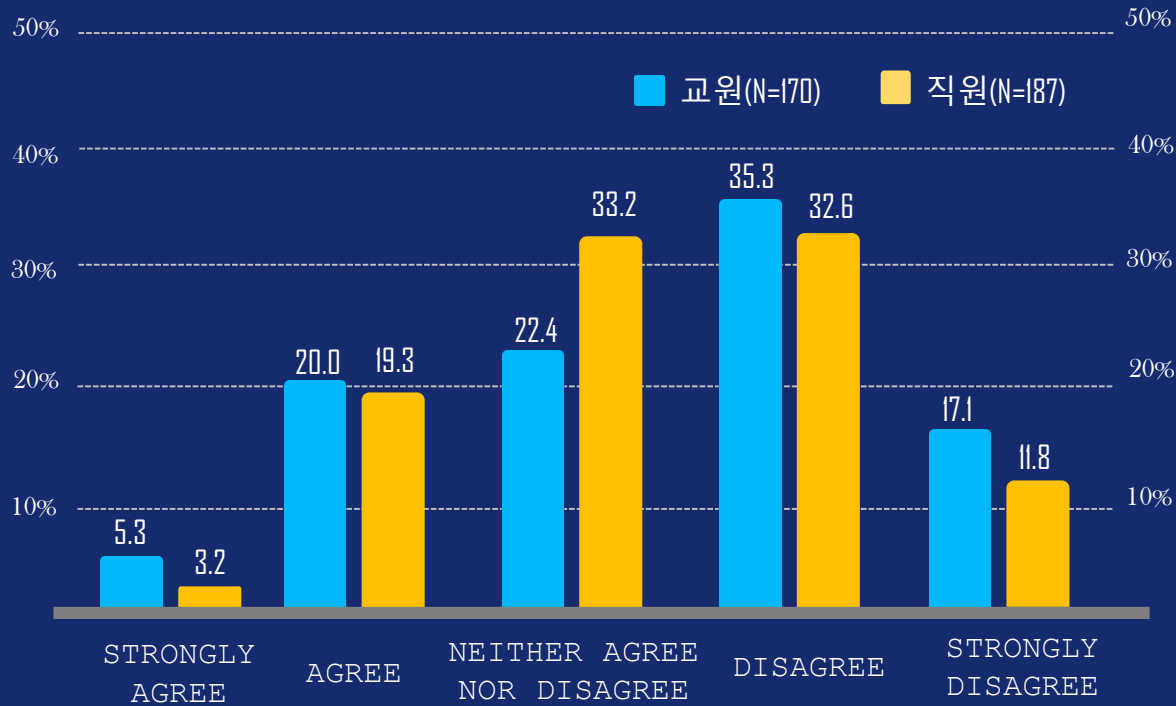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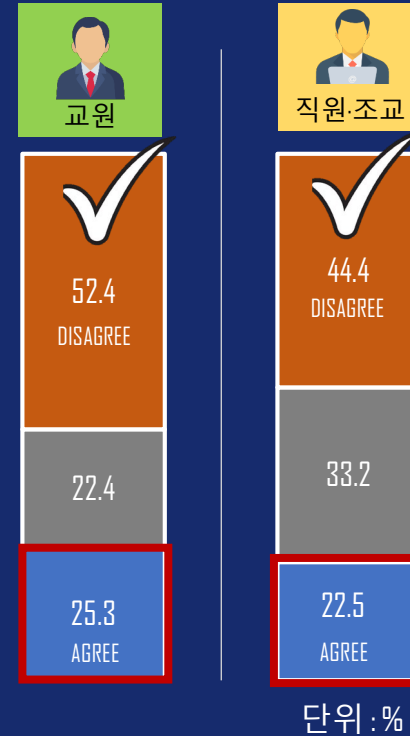
캠퍼스총장의 독립운영 권한부여에 대한 의견

**67.3%**

# Q25. 춘천캠퍼스에 대표 총장과 춘천캠퍼스 총장을 두는 안의 합리성 여부



【교원 및 직원의 문항별 비교】



【교직원의 긍정비율 비교】



## Q26. 캠퍼스 총장의 선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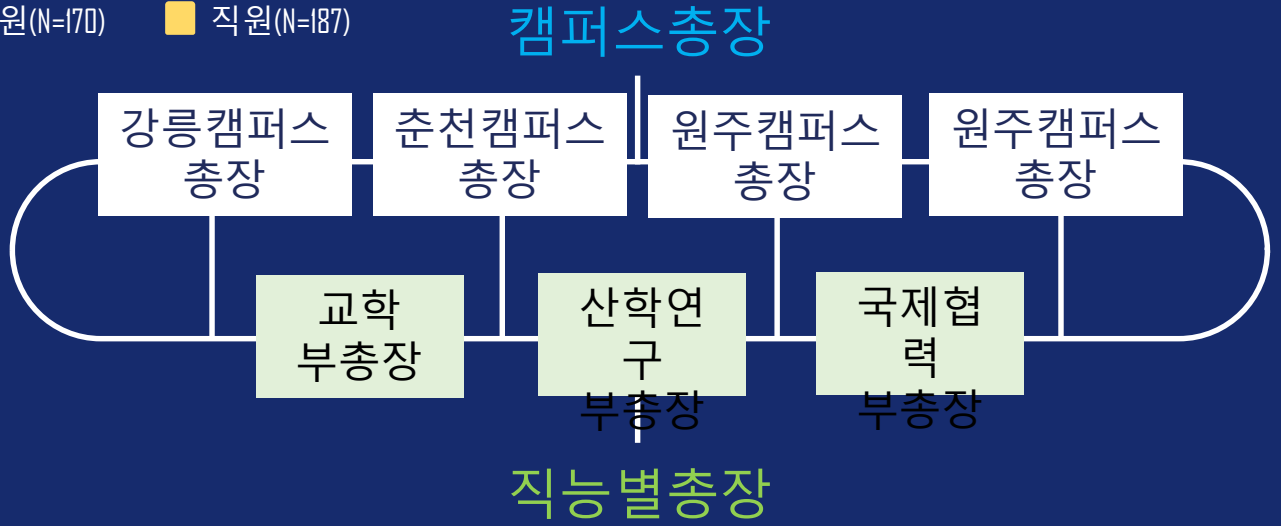
	교원(N=170)	직원(N=189)
직선제	70.0%	73.0%
승인제	4.1%	6.9%
러닝메이트제	12.5%	9.5%
지명제	10.6%	9.5%



# Q27. 직능별 부총장과 캠퍼스 총장 간 합리적인 직책 서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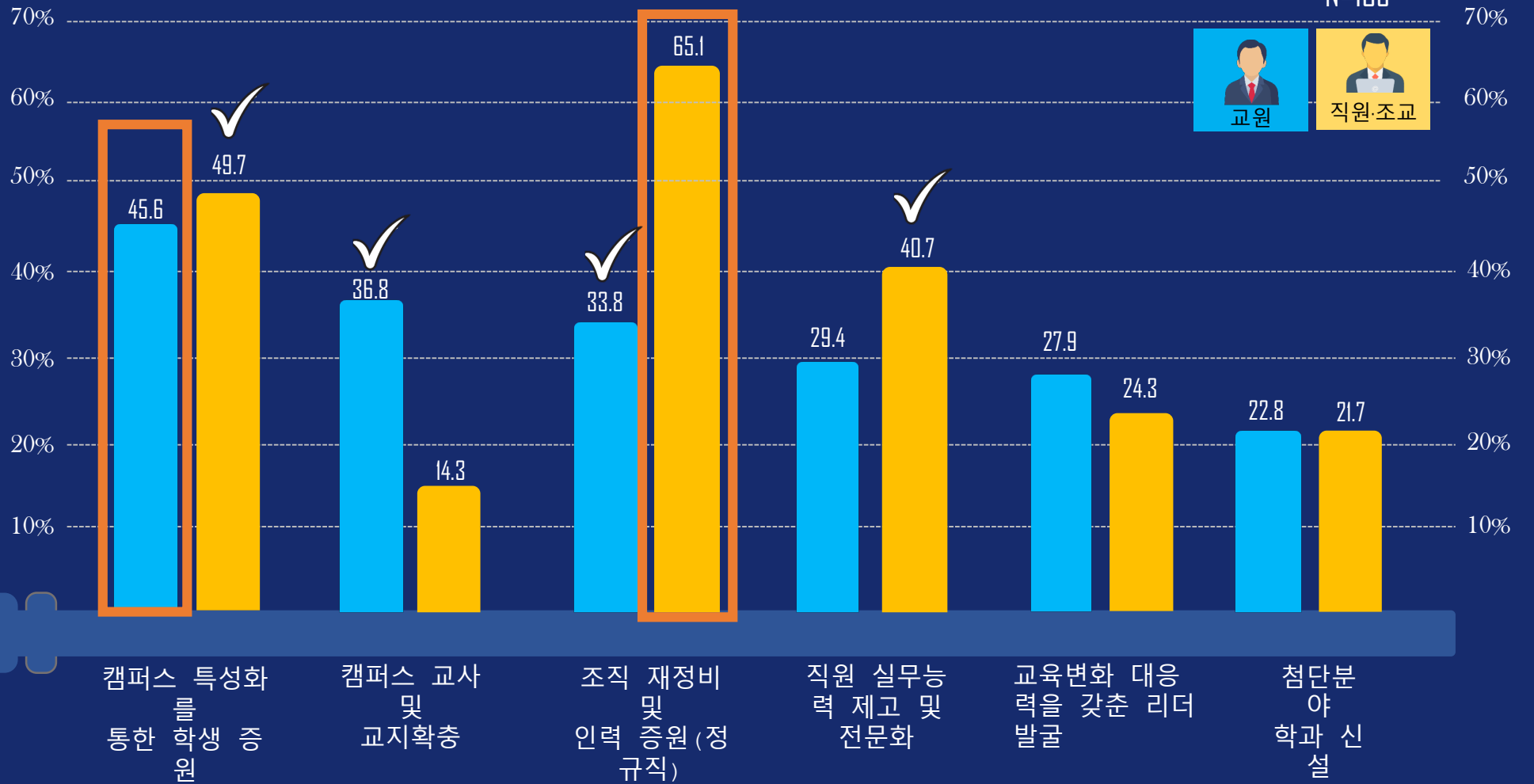


■ 교원(N=170) ■ 직원(N=187)



# Q28. 원주캠퍼스가 해결해야 할 선결 조건 (복수 선택)

N=189



기타의견 : 통합계획 수정계획시 강릉과 원주는 현체제로 가는 것은 어려운지요? 필히 4캠퍼스제를 해야 한다면 위 항목들 모두 필요

GLOCAL UNIVERSIT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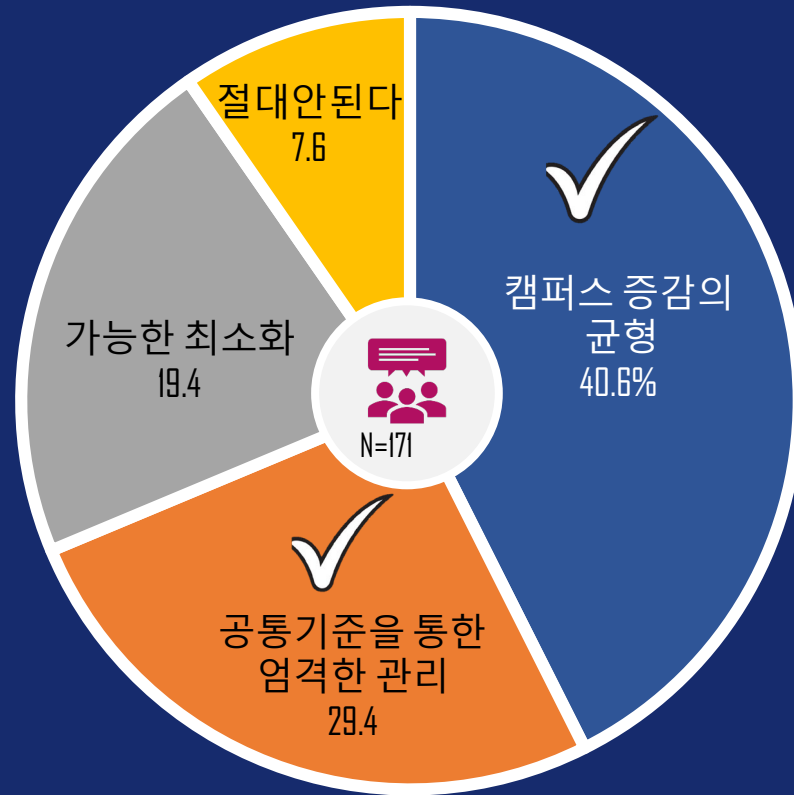
강원도국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강원도국립대학 - 학사구조 재구조화



**Q30.** 『국립대학 통·폐합신청서』에 ‘입학정원 관리는 캠퍼스별 정원을 명시하여 통합 관리하며 캠퍼스 간 정원이동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LOCAL UNIVERSIT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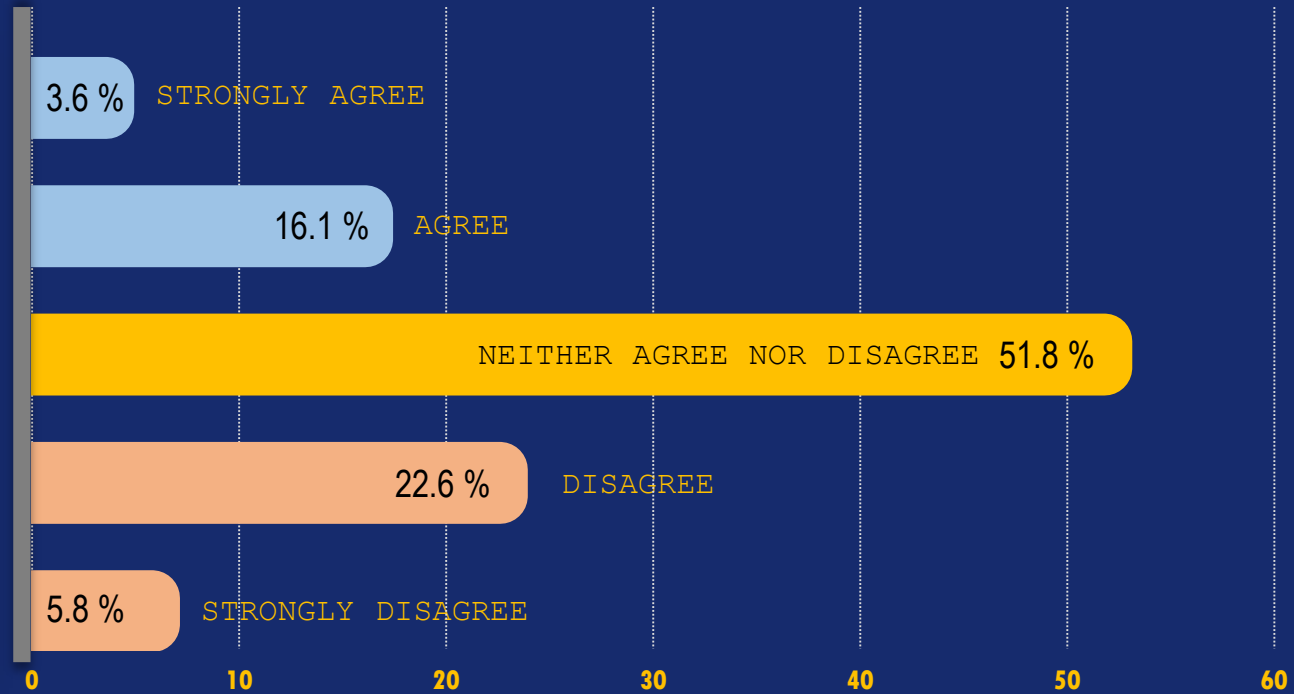
# Q30. 강원1도1국립대학 학사구조 재구조화 7개 모델의 지향점에 대한 인지도

+ 학사구조 재구조화 지향점에 대한 이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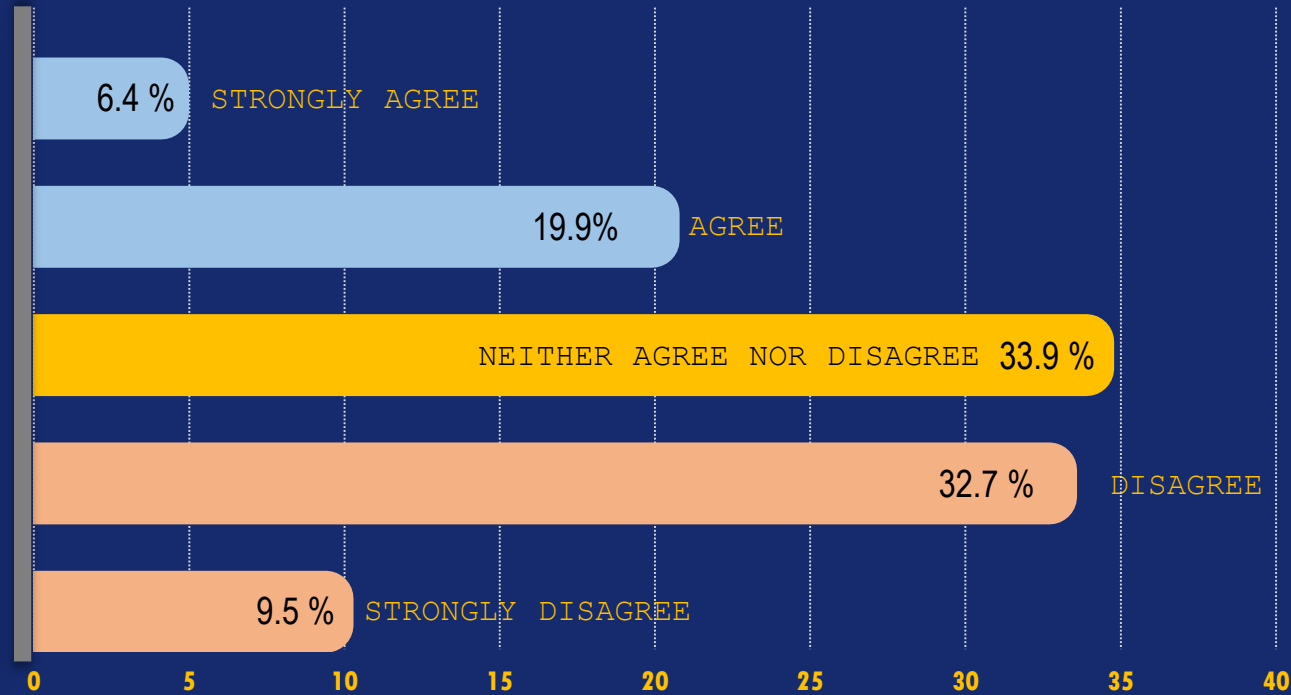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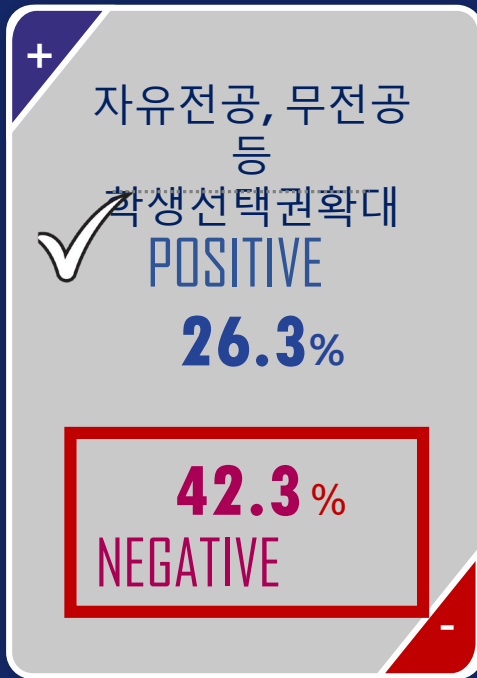
✓ POSITIVE 19.7%

28.4% NEG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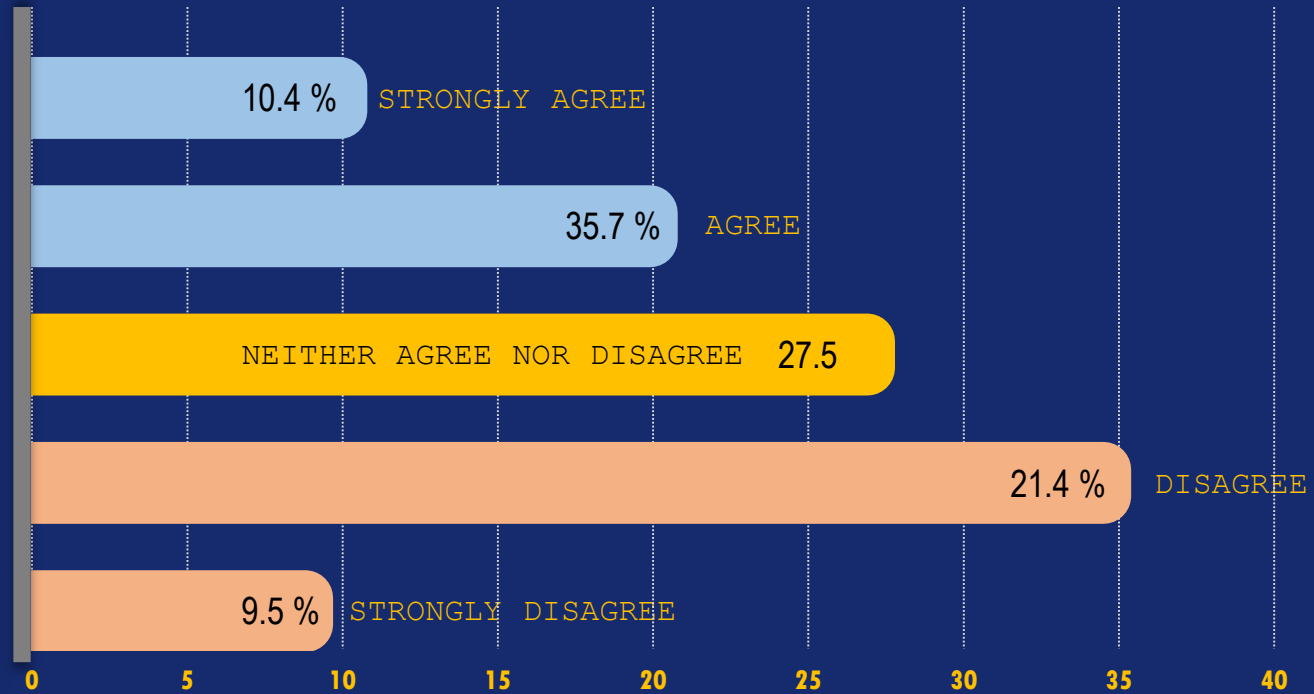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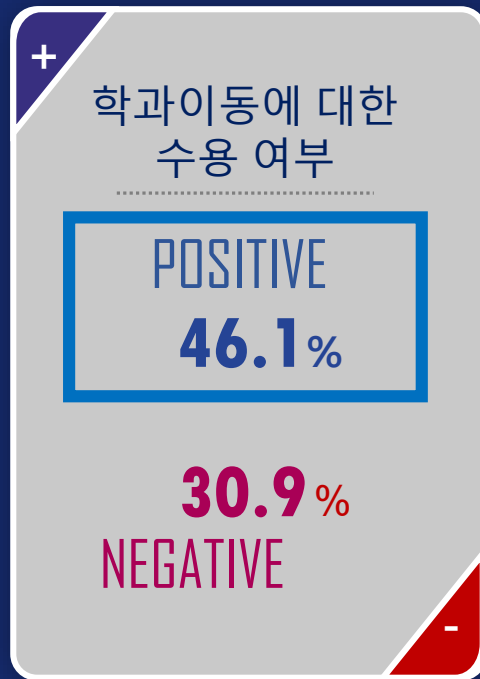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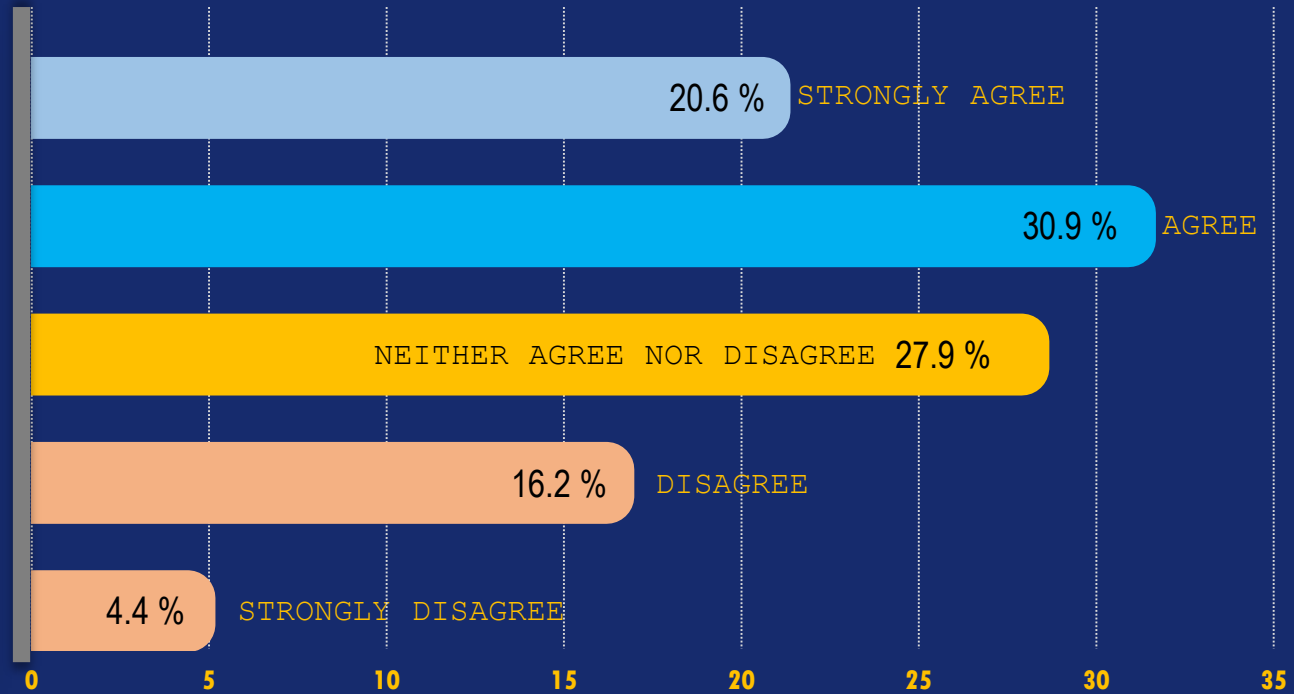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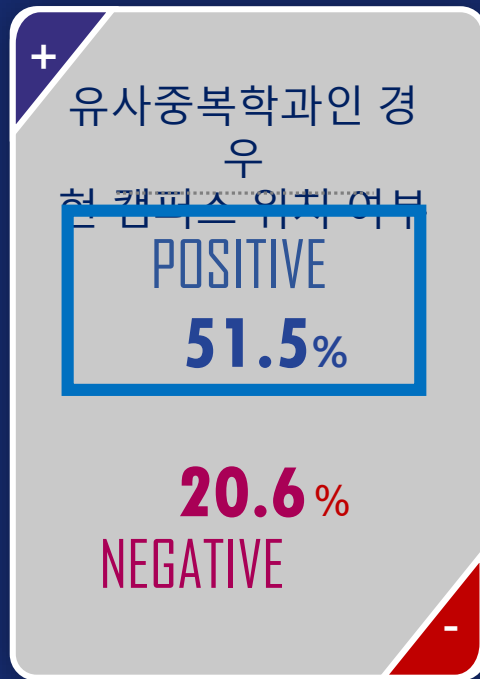
# Q31. 자유전공학부, 무전공학대 등 학생 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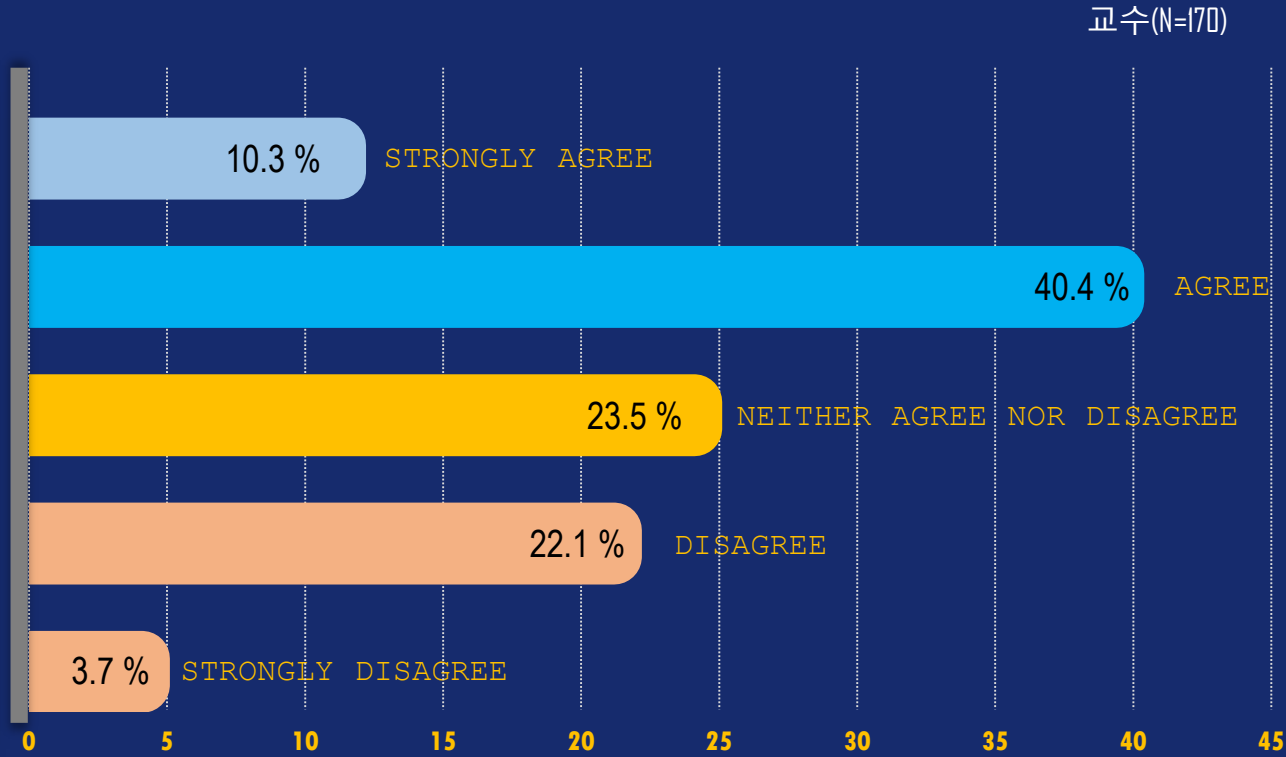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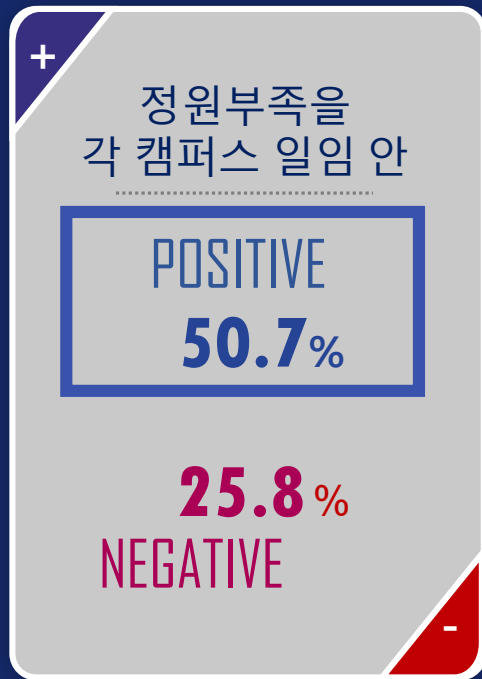
# Q32. 강원대학교 내 타 학과와 통합하여 학과 이동이 필요한 경우 수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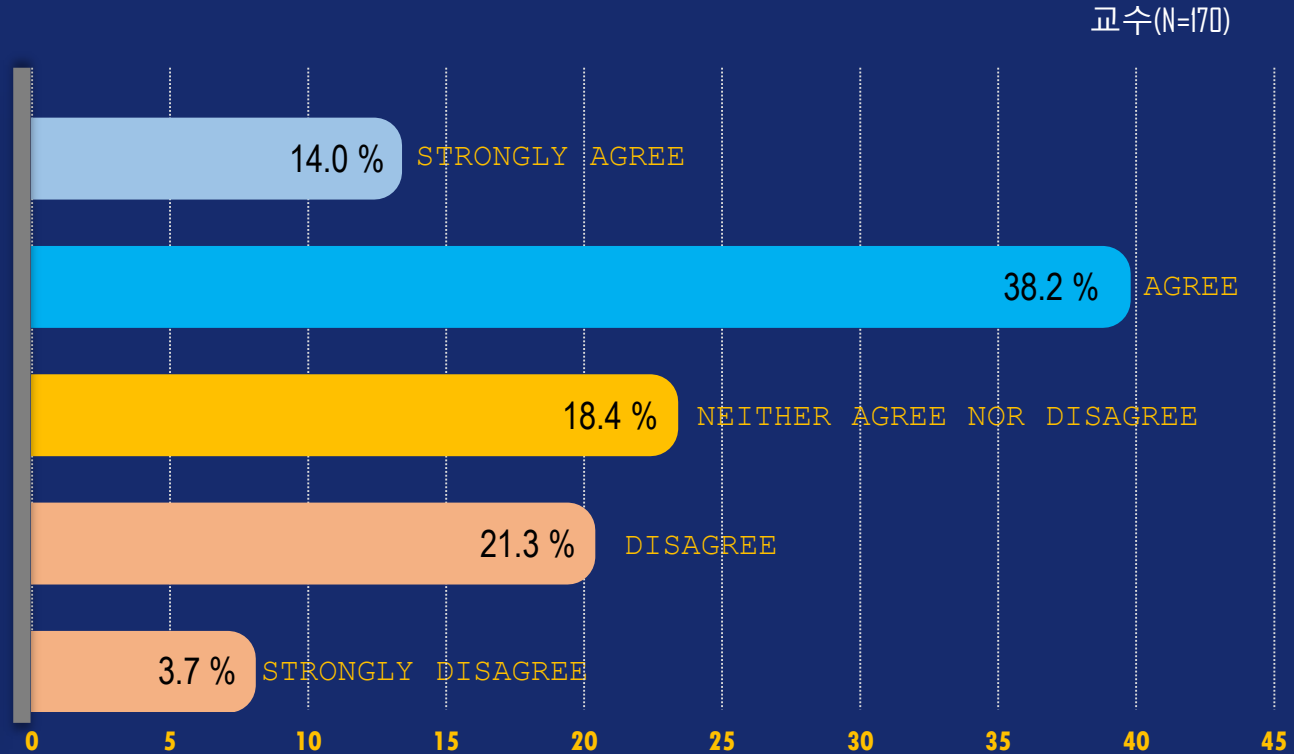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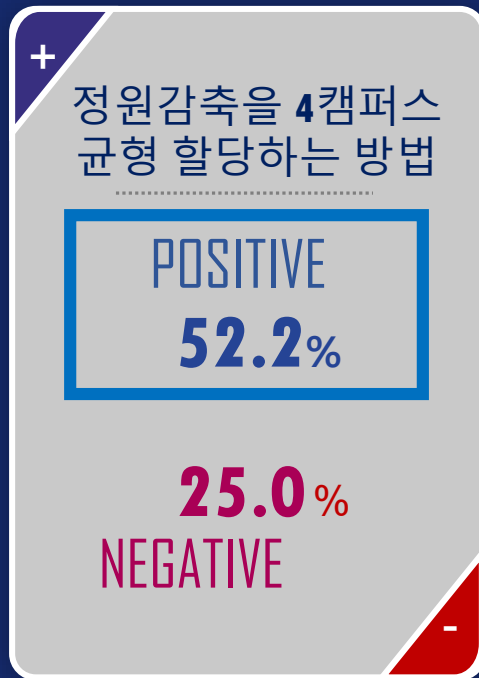
# Q33. 소속 학과가 유사·중복학과일 경우, 현재의 캠퍼스에 위치해야 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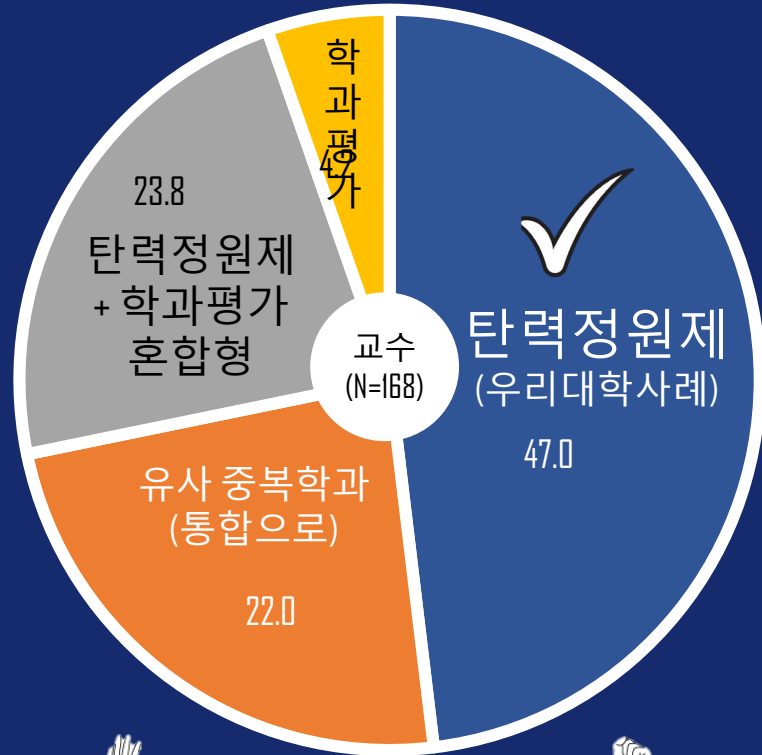
# Q34. 각 캠퍼스 정원부족에 대한 대응관리는 각 캠퍼스에 일임하는 동의정도



# Q35. 캠퍼스 정원감축은 4개 캠퍼스에 균형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동의 정도



# Q36. 글로벌대학 30 사업 4차년도 입학정원 감축 방법



논의를 통하여 더 좋은 방법을 모색

캠퍼스별로 알아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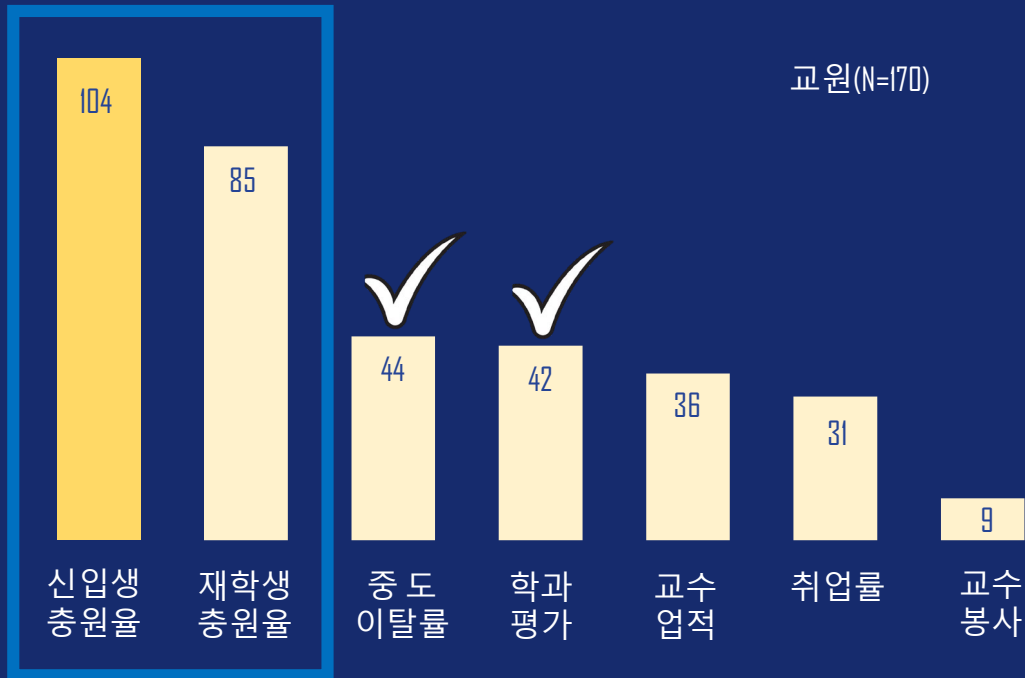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응기준이 필요

교육부방침에 따름. 대학 자율에 맞길 경우 각 캠퍼스별로 결정

유사·중복학과 통합으로 감축하는 방법을 우선하고, 추가 정원 감축이 필요하면 혼합형 제도를 선호



# Q37. 입학정원 감축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지표 선호도 (복수선택)



유사 중복학과의 통합을 최우선으로하고, 국립대 역할을 고려한 기초 보호학문분야의 최소 정원을 정한 다음에, 학생총원율과 학과평가 등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한 지표를 적용

최소 규모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신입생 총원율과 중도 이탈율을 고려. 여러 지표들과 자본의 논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지역거점국립대학을 지향한다면 비인기 기초 학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기초보호학문 / 유사 중복학과 통합

예술분야의 취업률은 다른 시각으로보아야 함(연구실적)

학문의 보존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하며, 기존 지표로는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은 모두 필요 없는 학과가 될 것임

학과평가 지표를 활용할 경우 각 캠퍼스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취업률, 기초학문분야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을 취업률에 포함해야 함

GLOCAL UNIVERSIT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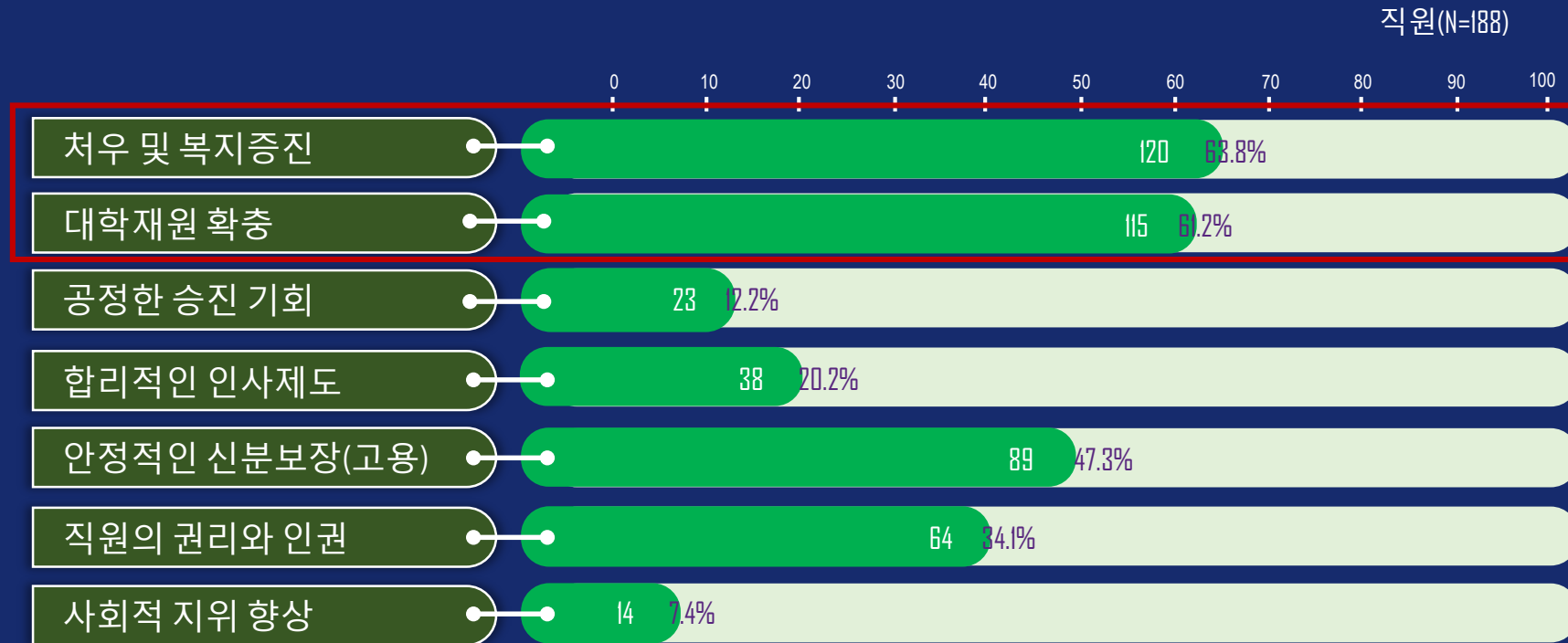
강원도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 강원1도1국립대학 - 직원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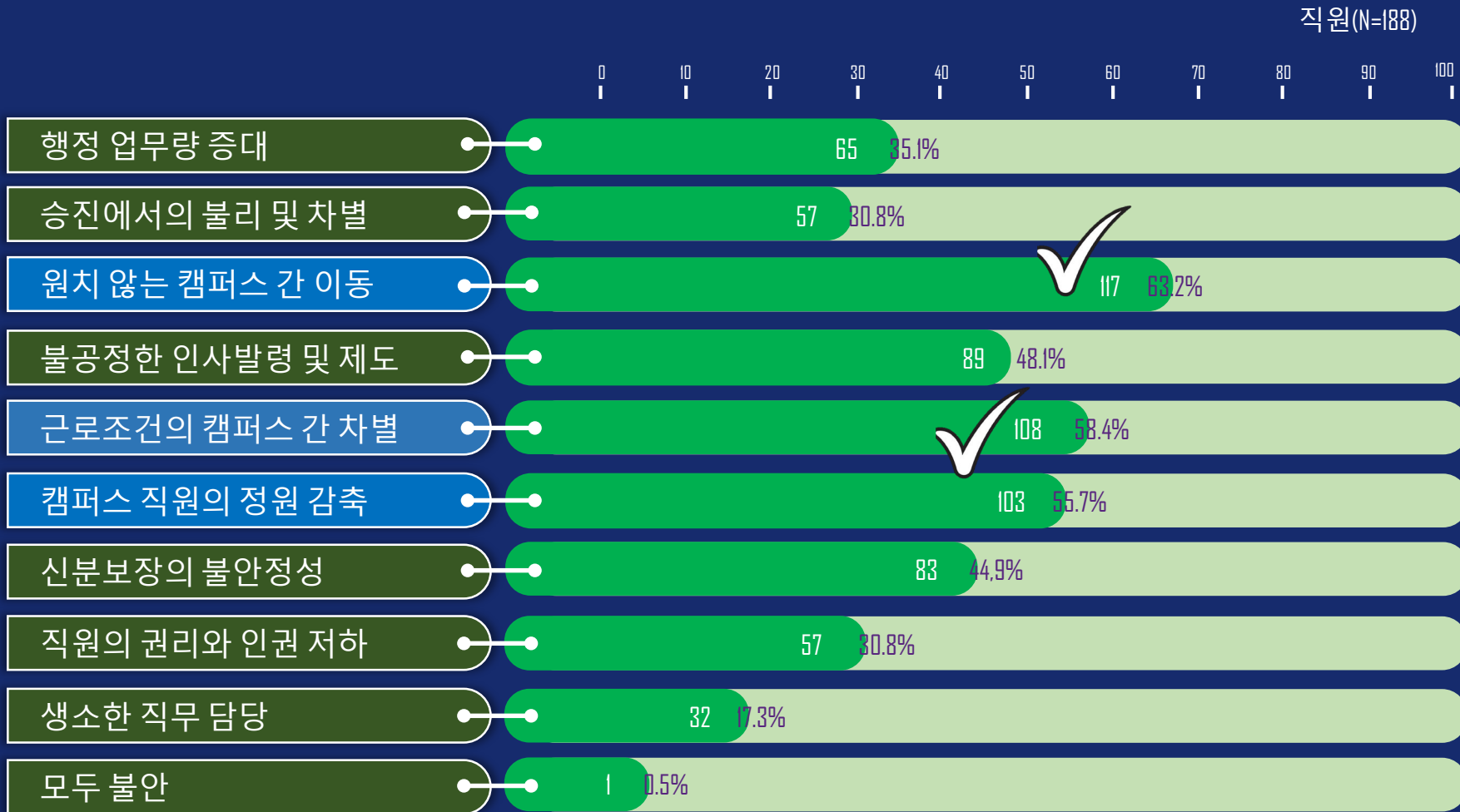
# Q38. 강원1도1국립대학에 따라 기대되는 것은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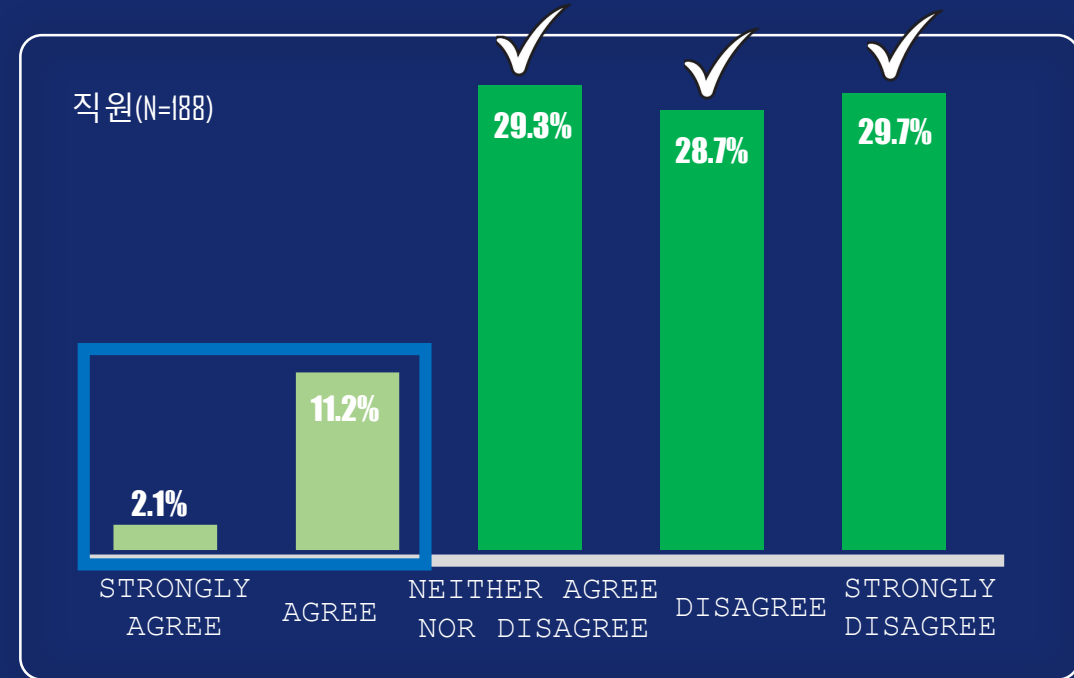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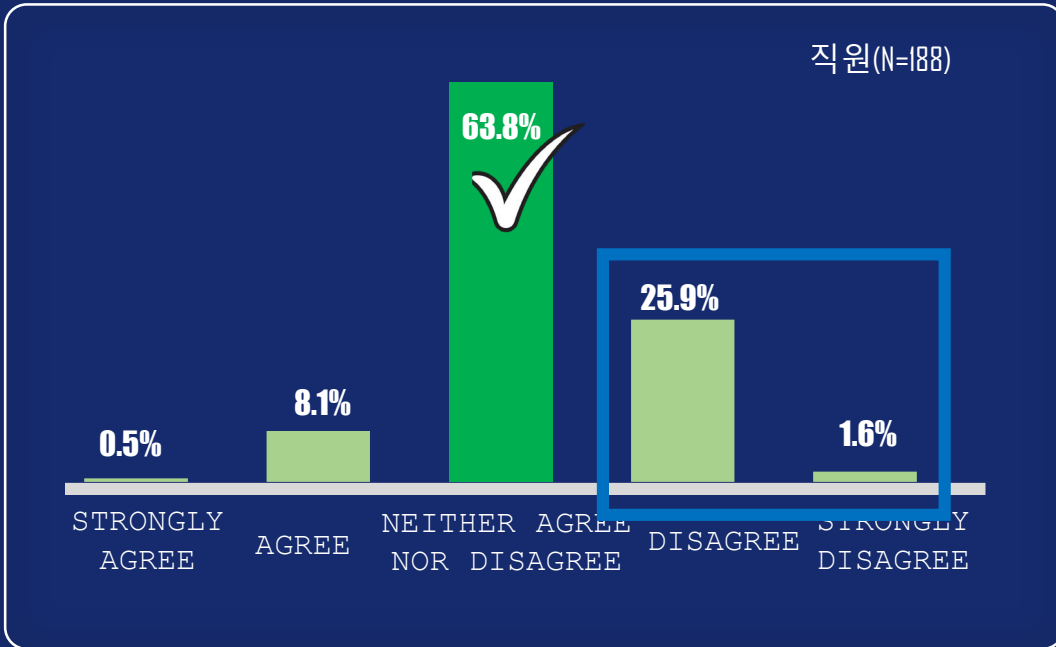
기타의견:

- 1. 대학의 경쟁력이 나아지겠지만, 교직원들의 처우는 실제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2.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 Q39. 강원1도1국립대학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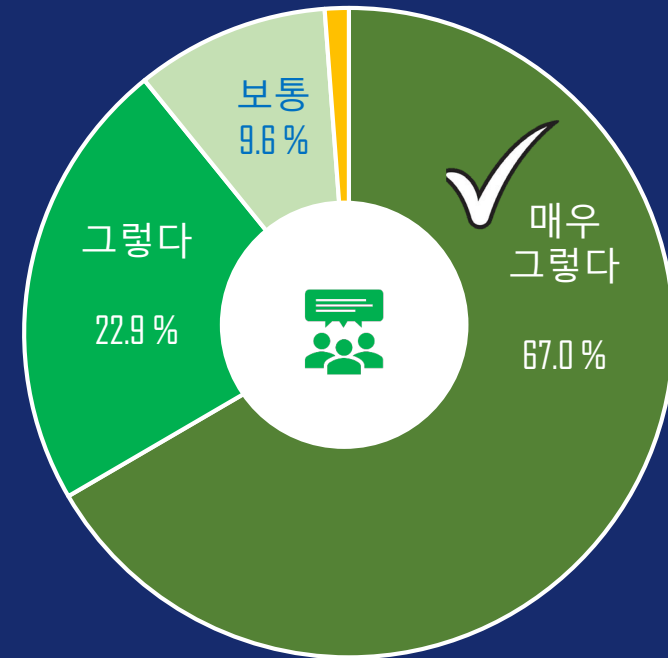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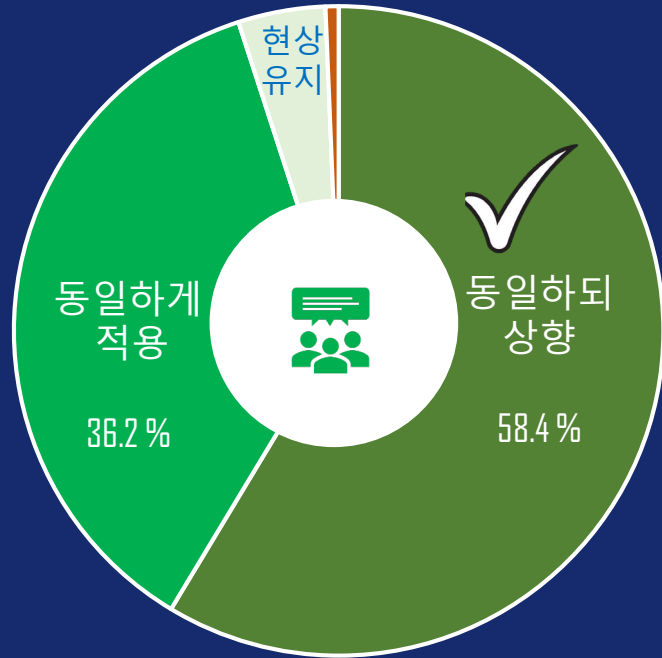
# Q40. 사업 추진과정에서 캠퍼스별 또는 부서별 업무협조의 원활한 기대 정도



# Q41. 춘천, 삼척, 원주캠퍼스 등으로의 이동을 대학에서 요구할 경우 수용 의도

## Q42. 강원대와의 통합 시 캠퍼스간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 적용 방법

GLOCAL UNIVERSITY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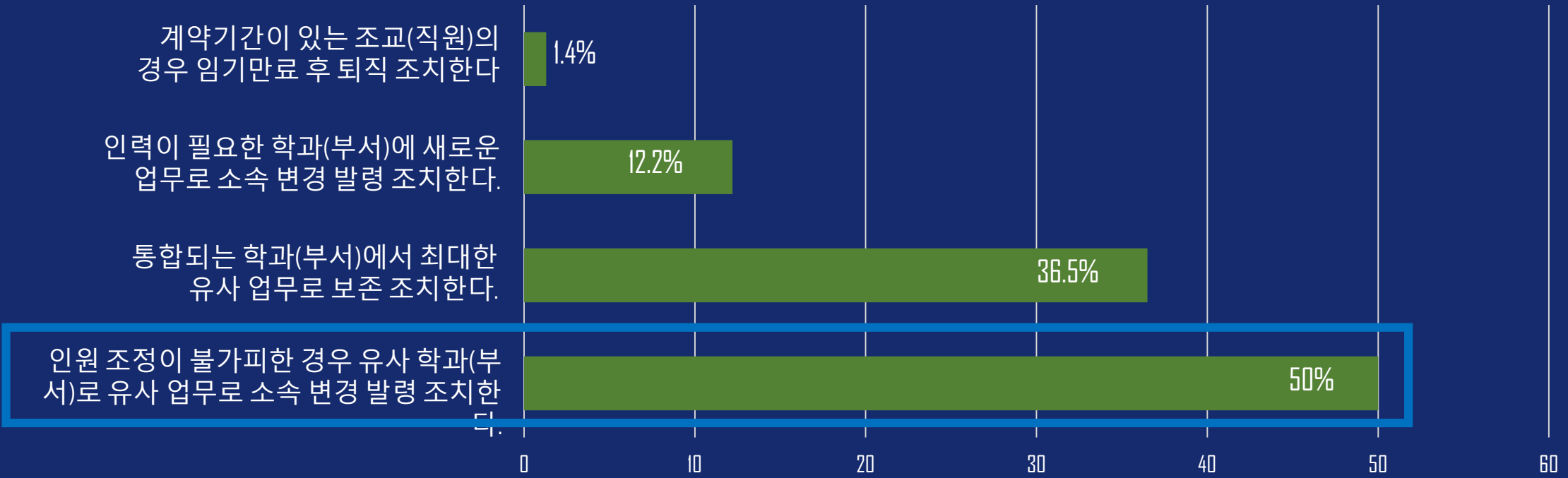


☞ 23년 9월 11일 전임 총장은 총장 서한문을 통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캠퍼스간 강제 이동은 없을 것이며, 파견 또한 동의 하에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 Q43. 정책의 연속성 및 신뢰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GLOCAL UNIVERSITY 30

# Q43. 통·폐합되는 경우 조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승계에 대한 의견





## 대등한 상생통합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위하여 관련 대학과 지역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통합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흡수통합이 아닌 대등한 위치에서의 통합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 추진과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결정이 되길 바랍니다. 흡수 통합이 아닌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평등한 통합이 하였으면 합니다. 동등한 입장으로 균형성장의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강원도국립대학 모델에서 양 대학 간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대세에 따라 흘러가야 하지만 동등한 위치와 자격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는 이미 점령균형세를 하고 있다는 분위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통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이 아닌, 공유를 통해 추진이 되었으면 함. 동등한 조건에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통합의 목적과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원대와의 통합은 기정 사실이고, 양 대학이 서로 유리한 조건만을 내세우겠지만 대학간 동등한 위치에서 선취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얻고, 양보해야 할 부분은 확실히 넘겨주는 현실적인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학본부의 모든 기능은 춘천에 있고 의사결정 기구에 춘천캠 출신 보직교수들이 압도적 다수로 들어간다면 학사구조 조정, 예산 배분 등 모든 결정이 춘천캠퍼스 위주가 될 것은 명약관화함. 또한 10년 후 강릉캠퍼스가 학생이 없는 학교로, 학교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단위는 교수, 직원, 학생도 아닌 지역사회일 것임.



## 소통

26년 1월 1일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임총장님 취임 후 학교명뿐만 아니라 세부실행계획에 대해 구성원 전체의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정밀하게 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과 정보 공유, 소통, 의견 수렴의 기회가 확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소통하며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니만큼 정책의사결정 면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고, 부서한 협력, 소통하는 과정을 치밀하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회의 이런 의견수렴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강원대와 핵심자원 배분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함.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양 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공명정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식적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 강원대와 우리대학에서의 통합 진행상황 및 절차가 다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원대는 상당부분이 진행되었음이고, 우리대학에서는 아무것도 진행된것이 없다는 다른 답변을 들음으로써 양대학이 서로 합의와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지 염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 총장 선출방법

통합 후 총장과 관련 강원대학교 총장이 해야 한다는 국립대학 통합매뉴얼은 단지 매뉴얼이기에 기초로 하되 우리대학 실정에 맞춰 규정 변경 요청 등을 통해 양 대학 총장을 후보로 직선제 선거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조교들은 생각하고 있으니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양 대학 총장 직선제를 통해 대표 총장 선출을 희망함. 통합 시 각 캠퍼스별 총장은 캠퍼스 구성원에 의해 직선제를 통해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대와의 통합 후 총장 임명에 강원대 총장이 한다는 합의에 대해 "국립대학 통합 매뉴얼"의 규정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양 대학의 총장을 후보로 직선제를 통해 대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규정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양 대학의 총장을 후보로 직선제를 통해 대표 총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강원대와의 통합 후 총장 임명에 강원대 총장이 한다는 합의에 대하여 "국립대학 통합 매뉴얼"의 규정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양 대학의 총장을 후보로 직선제를 통해 대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대학 통합 매뉴얼"의 규정 개정을 요청해서라도 양 대학의 총장을 후보로 직선제를 통해 대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 캠퍼스 총장 직선제를 지지합니다. 통합 이후 총장선임에 있어 양 대학의 후보로 직선제를 통해 대표 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처우, 고용안정 및 업무과중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직원들의 신분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통합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발이 적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통합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간 합치가 어려울 땐 여러 의견보다는 강력한 리더에 의해 빠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무지 및 임금 보장, 통합으로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캠퍼스 간의 이동은 없도록, 고용에 문제 없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통합에 있어서, 많은 방향 중요하지만 직원의 과도한 업무 개선, 복지, 처우쪽이 상향되는 방향 꼭 고려되어야 합니다. 캠퍼스 상호간 격차가 없길 기대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처우가 불평등이 없게 해주세요. 양 대학이 원안을 잘 만들어 대학과 직원간에 불합리 한것이 없도록 잘 통합되길 바랍니다. 특히 직원 처우에 있어 승진, 전보발령 시 거취, 복지 등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절차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 안내 요청. 신입생 및 편입생의 미충원 상황이 현실화되었으며, 서로 경쟁하는 국립대학이 아닌 통합으로 강원도의 제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하더라도 각 캠퍼스 구성원들에게 지금 처우보다 불리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됨. 행정업무과 무리하게 과중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 필요



###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예산을 배분 받는 주요 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강릉캠퍼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거버넌스 구성에서 최소한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구성원의 동의, 정보의 투명한 공개, 교육, 행정, 제반여건 등 모든 것에 치우침없이 상향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현재와 같은 통합보고서 상의 내용대로 통합한다면 통합 10년 후 2034년 강릉캠퍼스의 미래(학생 수, 학과 편제, 재정규모 등)가 어떻게 될지 그려보았으면 좋겠음. 영동 지방의 대표적 고등교육기구로서 강릉시를 비롯한 영동지역 지자체와, 지역 고등교육의 희생과 영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해야 함.



### 기타

설문이 너무 깁니다. / 이렇게 긴 설문을 누가 할까요? 제발 생각을 좀 합시다. 그리고 초반에 인적사항 질문 그걸 정확하게 쓰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음. 제발 본인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강릉원주대학교를 위해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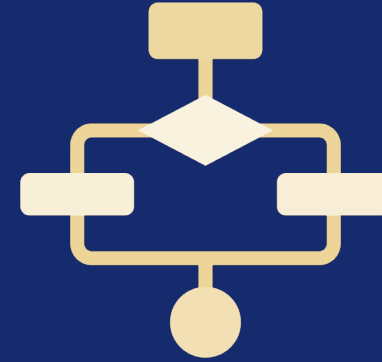
설문결과보고를 마치  
며



적극적 참여



체계적인 소통채널



명확한 절차와 방법



# 강원도립대학 추진을 위한 대학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